절세위인들과 조선녀성들

주체 111(2022)년

머 리 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령도밑에 우리 나라 녀성운동은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주체의 녀성운동으로, 천만녀성대중이 당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쳐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있게 밀고나가는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녀성운동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세계 진보적녀성운동의 본보기로 자랑떨치고있습니다.》

지난날 봉건의 멍에와 일제의 식민지철쇄에 얽매여 몸부림치던 조선녀성들, 살아도 죽은 목숨이나 같았고 녀자로 태여난것으로 하여 천대만을 받아야 했던 무권리한 존재가 바로 조선녀성들이였다.

이 가슴아픈 력사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으시고 그들에게 자주적인 참된 삶을 안겨주시여 남자들과 꼭같이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 키워 내세워주신분은 절세위인들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이시다.

혁명위업수행에서 녀성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주체의 녀성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영광스러운 전통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다른 근로단체들에 앞서 녀성동맹을 창립하시고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녀성동맹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당의 인전대, 믿음직한 방조자로서 자기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여 녀성들의 지위에서 세기적인 전변이 일어나게 하시고 녀성들을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어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 키워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녀성운동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녀성동맹을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녀성

중시, 녀성존중의 정치로 녀성들이 존엄높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따사로운 축복속에 행복을 누려온 조선녀성들은 오늘 또 한분의 절세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속에서 참된 삶을 꽃피워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주체 100년대에 조선녀성들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제시해주시고 숭고한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을 지니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헌신하는 애국녀성들로 살며 일하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고계신다.

녀성들을 위한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의료봉사기지도 일떠세워주시고 녀성비행사, 녀성과학자, 녀성체육인들을 비롯한 온 나라 녀성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끝없이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들은 사회주의조선의 그 어디에나 수놓아져있다.

세상에는 수십억의 녀성들이 있지만 조선녀성들처럼 대를 이어 절세위인들의 축복속에 값높은 삶을 누리며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사명과 본분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는 녀성들은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것은 조선녀성들의 더없는 영광이고 보람이다.

영원한 운명의 품, 은혜로운 태양의 품에 안겨사는 조선녀성들의 앞날은 끝없이 휘황찬란하다.

이 도서에는 녀성중시, 녀성존중의 정치로 조선녀성들을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끝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인상을 보여주는 혁명일화들가운데서 그 일부를 수록하였다.

차 례

(3)

2. 은혜로운 사랑과 크나큰 믿음

(1)

(2)

(3)

1. 위대한 스승

절세위인들의 어버이품을 떠나서 조선녀성들은 오늘의 행복도 찬란한 래일에 대하여서도 생각조차 할수 없다.

조선녀성들에게 사회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여 그들이 참된 삶을 빛내이도록 해주신분도 절세위인들이시고 키워주고 내세워주신분도 절세위인들이시다.

언제나 잘되기만을 바라며 속도 태우고 애쓰는 부모들과 스승의 심정으로 걸음마도 떼주시고 모르면 깨우쳐주시고 안되면 바로잡아주시면서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정녕 절세위인들의 품은 조선녀성들모두가 안겨사는 자애로운 어버이, 스승의 품이다.

그 위대한 품속에서 자라난 조선녀성들의 충성의 대오는 세기와 세기를 넘으며 더더욱 늘어나고있는것이다.

(1)

첫 혁명적녀성조직-반일부녀회의 결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녀성들을 각성시키고 묶어세우시기 위하여 조선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강반석녀사께 일제를 몰아내고 조선의 해방을 이룩하자면 로동녀성, 농민녀성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녀성들을 각성시켜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녀성들을 하나로 묶어세울수 있는 혁명적인 녀성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와 강반석녀사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주체 15(1926)년 12월 26일 무송에서 각성된 핵심녀성들로 조선의 첫 혁명적녀성대중조직인 반일부녀회가 결성되였다.

반일부녀회, 이것은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것을 선차적임무로 내세우는 혁명적녀성조직의 투쟁성격과 사명을 뚜렷이 반영하였을뿐아니라 녀성해방의 가장 선차적이며 근본적인 문제를 밝힌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명칭이였다.

반일부녀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탁월한 령도를 받는 조선에서 처음으로 되는 주체의 혁명적녀성조직이였으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녀성들을 묶어세워 그들의 리익을 대변하고 옹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녀성대중조직이였다.

남씨로인의 뉘우침

카륜의 어느 한 마을에는 봉건이 심하기로 소문난 남씨성을 가진 한 로인이 살고있었다. 그는 녀자들이 밖으로 나다니는것을 볼 때마다 암닭이 홰를 치며 다니면 수닭이 쪽을 못쓴다고 하면서 아예 질색을 하였다.

그바람에 남로인의 며느리는 바깥출입조차 하기 힘들어하였다. 그로 말하면 마을의 반일부녀회원이였다.

완고한 시아버지의 이러한 처사때문에 부녀회사업을 제대로 할수 없어 며느리는 더 말할것도 없고 부녀회책임자도 몹시 골머리를 앓고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느날 저녁 남로인의 집을 찾으시여 그의 일손을 도우시면서 부드럽게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먼저 로인의 지나온 생활형편을 물어보신 그이께서는 일제의 가혹한 폭압과 략탈로 하여 신음하고있는 조선인민의 비참한 생활처지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였다.

처음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물으심에 건성으로 한마디씩 이야기를 나누던 로인은 차츰 그이께서 하시는 말씀의 세계에 끌려들기 시작하였다.

너무나도 자기의 심정을 속속들이 헤아리는 그이의 말씀을 들으며 남로인은 자기뿐만아니라 일제에게 강점된 조선인민이 겪는 불행과 고통이

가슴속에 어려와 울분을 금하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지주, 자본가놈들의 착취가 없는 사회를 세우기 위하여 싸워야 한다고, 바로 로인님의 며느리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하여 반일부녀회조직에 든것이라고 하시였다.

완고하게 봉건적륜리만을 고집하면서 나라찾는 큰일을 생각지 않았던 자기의 옹졸한 생각이 얼마나 그릇된 처사였는가를 뼈에 사무치도록 뉘우치게 된 로인은 위대한 수령님께 사죄의 절을 올리고 또 올리였다.

그후 로인은 나라찾는 싸움에 나선 자기 며느리를 장하게 여기면서 그의 사업을 성심성의로 도와주었다.

부녀회장이 받아안은 귀중한 지침

주체 21(1932)년 11 월 어느날 소왕청에 오시여 유격구안의 혁명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해주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일부녀회사무실을 찾으시였다.

반일부녀회 회장일을 맡아하고있는 한 녀성을 만나신 그이께서는 그에게 부녀회원은 얼마나 되며 지금 부녀회에서 무슨 일들을 하고있는가, 일하는데서 제일 힘에 부치고 어려운것이 무엇인가고 구체적으로 물으시였다.

그의 말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지금 반일부녀회가 해야 할 일들이 대단히 많은데 그것을 해내자면 힘에 부칠수 있다고 하시면서 문제는 부녀회원들의 혁명적각오에 달려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부녀회가 마을녀성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조직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마을녀성들을 야학에도 적극 참가시키고 정세도 알려주어 그들이 모두 혁명투쟁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고, 녀성들이 힘을 합치면 그 어떤 원쑤도 무서울것이 없다시는 그이의 가르치심은 오랜 시간 계속되였다.

부녀회 회장의 가슴속에 혁명에 대한 각오를 다시금 새롭게 새겨안게 한 이날의 가르치심은 그에게 있어서 참으로 귀중한 지침이였다.

남녀평등권을 실생활에서 하나하나 행사해나가야 한다

력사적인 남녀평등권법령이 발포된 후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녀성일군들을 통하여 오랜 세월 빛을 잃고 짓밟히며 살아온 녀성들이 희망찬 새 삶을 안겨주신 수령님께 감사를 드리며 새 조국건설에 헌신할 것을 결의해나서고있다는 소식을 전해듣게 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날 일군들에게 남녀평등권법령이 실시됨으로써 조선녀성들에게는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가 보장되고 새 생활창조를 위한 길이 활짝 열리게 되였다고, 이것은 우리 나라 력사발전에서 하나의 큰 사변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그렇다고 하여 만세나 자꾸 부를것이 아니라 남녀평등권을 실생활에서 하나하나 행사해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모든 녀성들이 항일혁명투쟁시기 조국의 해방과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남자들과 같이 직접 손에 총을 잡고 용감하게 싸운 조선인민혁명군 녀전사들처럼 낡은 사상과 생활인습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새 조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적극 참가해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녀성의 노래》를 들으시며

어느해 가을날 저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집무실창가에서는 은은한 노래소리가 흘러나오고있었다.

다름아닌 《녀성의 노래》였다.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신채 깊은 사색에 잠기시여 노래를 들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에게 문득 동무는 저 노래를 좋아하는가고 물으시였다.

그 일군은 형언할수 없는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인차 말씀을 올리지 못하였다.

사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 한 농장의 과수분장을 찾으시였다가 기념촬영장에 녀성이 한명밖에 없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엄하게 지적하시면서 사과따는 녀성도 좋고 농약치는 녀성도 좋으니 녀성로동자들을 다 데려오라고 하시며 오래도록 분장을 떠나지 못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은 우리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밀고나가는 주력군이라고, 녀성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힘을 믿지 않으면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모든 사업에서 녀성들을 적극 내세워주어야 한다고, 녀성들을 꽃이라고 노래만 부를것이 아니라 혁명의 꽃을 피워나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녀성의 노래》선률은 계속 흐르고있었다.

조용히 노래를 들으시며 김정숙동무가 저 노래를 무척 좋아했다고, 저 노래는 김정숙동무와 인연이 깊은 노래라고 하시면서 김정숙동지를 뜨겁게 추억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젖으신 음성으로 김정숙동무는 하루종일 공장과 농촌의 녀성들을 찾아다니고는 저녁에 돌아와 저 노래를 부르며 이제는 녀자들도 남자들과 꼭같이 새 조선건설에서 한몫 하게 되였다고 기뻐하군 했다고 하시였다.

어머니들의 임무를 밝혀주시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 50(1961)년 11 월 전국어머니대회를 소집하도록 해주시고 몸소 대회에도 참석하시였다.

대회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람들은 가정과 학교, 사회생활을 통하여 교양을 받으며 여기서 가정교육은 학교교육, 사회교육의 기초로 된다고, 그것은 학교나 사회에서는 할수 없는 교양을 가정에서 잘할수 있

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자녀교양에서 나서는 어머니들의 역할과 임무에 대하여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가정교육에서는 어머니가 중요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어린이의 첫째가는 교양자는 어머니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대회참가자들모두의 가슴속에 자녀교양에서 차지하는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며 어머니가 된 영예가 얼마나 큰가를 깊이 새겨주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마동희동무의 어머니를 모시고있다고 하시면서 장길부어머니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였다.

자기의 혀를 끊어 사령부의 안녕을 결사보위한 불굴의 투사 마동희동지, 아들은 물론 딸과 며느리까지 모두 조국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바친 장길부어머니를 높이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어머니들이 마동희동무의 어머니처럼 자기 아들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한다면 아이들이 다 훌륭한 혁명가로 자라날수 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어머니들이 앞날의 주인공들을 길러내는 무거운 책임과 영예를 더욱 깊이 느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아들딸들을 교양하는데 무슨 다른 방법이 요구되는것도 아니라고, 오늘 우리 나라에서 많이 창조되고있는 긍정적모범으로 아들딸들을 교양하면 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들딸들에 대한 교양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자신이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되여야 한다는데 대해서와 자식들을 잘 거두는것을 비롯하여 어머니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해학에 담긴 절절한 가르치심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경성도자기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생산공정을 일일이 돌아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별직장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그이께서는 접시 하나를 드시고 오래도록 살펴보고 또 살펴보시였다.

이전보다 제품의 질이 좀 나아지기는 하였지만 아직 두텁고 색이 희지 못하며 규격도 일정하지 못하였다.

얼마후 그이께서 공장마당으로 나서실 때였다.

공장마당에는 꿈결에도 뵙고싶은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뵈옵기 위해 달려나온 녀성로동자들이 붐비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한 녀성로동자들을 대견하게 둘러보시며 동무들이 만든 도자기는 동무들처럼 곱고 아름답지 못한게 탈이라고, 녀성들이 아침에 일어나 세면을 한 다음 거울을 들고 눈섭을 그리고 화장을 하는것처럼 제품을 정성들여 곱게 만들어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다정하신 어조로 해학적인 비유까지 해가시며 하시는 그이의 가르치심에 녀성로동자들은 어려움도 잊고 저도모르게 따라웃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녀성로동자들에게 도자기를 만드는 일은 섬세성과 정밀성을 요구하는 하나의 예술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제품의 질을 지금의 3점수준에서 5점수준으로 높일수 있겠는가고 물으시였다.

녀성로동자들은 저저마다 그이의 앞에 나서며 위대한 수령님의 뜻대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대답올리였다.

녀성로동자들의 눈굽은 젖어들었다.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여도 그것을 대하는 로동자들의 자세와 립장을 바로잡아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웅심깊은 사랑이 그들모두의 가슴속에 세차게 파고들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그후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제품의 질개선에서 일정한 성과가 이룩되고있던 어느날 또다시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장일군에게 집에 어린아이가 있는가고

물으시며 우리가 아버지노릇을 잘하려면 아이들의 밥그릇을 더 많이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제품의 가지수와 량을 더욱 늘일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학적인 비유법으로 제품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너그럽게 일깨워주시여 공장에서는 제품의 질을 개선하고 그 가지수와 생산량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장산리를 여러차례 찾으시여

전쟁의 불구름이 타래쳐오르던 주체 41(1952)년 6월 어느날 저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룡천군 장산리(당시 하장리)를 찾으시였다.

그때 민주선전실에서는 당원들이 모내기정형을 총화하고 당면한 김매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안건으로 세포총회를 하고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그곳에 가보자고 하시였다.

불빛희미한 방웃쪽에 조용히 자리를 잡으신 그이께서는 당세포총회보고와 당원들의 열정에 넘친 토론들을 주의깊게 들으시였다.

시간이 흘러 휴식을 알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줄을 알리 없었던 녀성당원들은 한 녀당원이 치는 풍금에 맞추어 《발갈이노래》를 비롯한 노래를 불렀다.

얼마후에야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들의 당세포총회에 참가하시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목청껏 만세를 부르는 당원들에게 따뜻이 답례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과 무릎을 마주하시였다.

당세포총회는 위대한 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계속되였다.

그이께서는 당세포총회가 아주 잘되였다고, 당원들이 토론을 열정적으로 하고 사기도 높다고, 앞으로 당세포사업이 발전할수 있다고 하시면

서 그들을 고무격려해주시였다. 오늘 당세포총회에서 토론한 녀성동무가 논머리에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농사를 잘 지어 전선에서 적들과 판가리싸움을 하고있는 남편과 오빠들에게 더 많은 식량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는데 그 결심이 아주 좋다고 하시면서 그이께서는 당원들은 누구나 다 이 동무와 같은 그런 정신, 그런 투지를 가지고 일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농촌당원들앞에 나선 첫째가는 전투적과업은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여 전선에 보내주는것이라고 하시며 그 실현방도에 대하여서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은 장산리당원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원들은 어려운 때일수록 대중의 앞장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야 하며 생활을 락천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방금 회의휴식시간에 한 녀성당원이 풍금을 치고 다른 녀성들이 거기에 맞추어 노래를 신이 나서 흥겹게 불렀는데 자신께서는 비록 전쟁시기이지만 여기 당원들이 락천적으로 일하며 생활하고있는 모습에서 큰 고무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더없이 기뻐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오시였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전쟁의 어려운 환경속에서 풍금을 치고 노래를 부르며 락천적으로 생활하는 하장리(당시)당원들이 자랑스럽다고, 당원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니 힘이 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때로부터 14 년세월이 흐른 어느날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장산땅을 찾으시였다.

잊지 못할 전화의 그날을 회상하시면서 전시당원들의 안부를 물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몇몇 당원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안색을 흐리시며 좋은 동무들인데 일찍 돌아갔다고 못내 가슴아파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당세포회의에 참가하였던 장산리사람들은 다 당에 충실한 당원들이였다고, 당에 충실한 이러한 당원들이 후방을 지키고있었기에 전쟁시

기 우리는 미제와의 판가리싸움에서 승리할수 있었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몸소 마련해주신 인민반장들의 모임

주체 51(1962)년 3 월 4 일, 이날은 일요일이였다.

중구역에서 사는 10 여명의 인민반장들은 인민반장모임이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 한 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차에 오른 인민반장들은 당중앙위원회청사에 이르자 모두 어리둥절해서 서로 마주보았다.

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어느 한 방에 들어선 그들은 깜짝 놀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자기들을 반겨맞아주시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반장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고 살림살이 이야기나 해보자고 하시였다.

인민반사업을 맡아본지 몇해나 되는가, 반내세대주들의 직업별구성은 어떠한가, 한가정에서 두 사람이상 직장에 나가는 세대는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생활에서 어떤 곤난들이 있는가에 대하여 차근차근 물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며 인민반장들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단란한 가정적인 분위기속에 포근히 안겨드는것 같았다.

그이께서는 주민들에게 부식물은 어떻게 공급하고있으며 살림집들의 난방조건은 어떠한가 등 인민생활문제들을 알아보시고 인민반장들은 자기 인민반의 매 집의 식구는 몇명이나 되며 숟가락이 몇개나 되는가 하는것까지 자세히 알고있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중구역에서 어린애들이 얼마나 출생하였으며 승리거리에 대동강쪽으로 아이들을 위한 인민학교(당시)가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인민학교는 없고 이전 민족해방투쟁박물관자리에 문학대학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방금까지 환하게

짓던 웃음을 거두시고 낮으면서도 힘있게 교시하시였다.

앞으로 어린 학생들이 큰길을 건너 학교에 다니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창전네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보면 인민학교학생들이 큰길을 건너 학교에 다니고있는데 어린 학생들이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는 큰길을 건너 학교에 다니는것은 위험하다고, 인민학교건물을 새로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학대학을 다른 곳에 옮기고 그 건물을 인민학교로 리용하든지 하여 어린 학생들이 큰 길을 건너 다니지 않게 대책을 세우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학생들의 교복과 학용품을 더 좋은것으로 마련해줄데 대하여서도 교시하시였다.

이렇듯 그이께서는 일요일에도 쉬지 않으시고 인민반장들을 부르시여 살림살이를 의논하시고 이들이 해야 할 사업에 대해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녀성군인들이 새겨안은 고귀한 뜻

주체 61 (1972) 년 3 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한 녀성해안포구분대를 찾으시였다.

몸소 포진지에 오르시여 녀성군인들의 화력복무훈련을 보아주신 그이께서는 포사격을 보자고 하시였다.

쌍안경을 드시고 목표물들을 살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주 잘 쏜다고, 군함같으면 벌써 녹아났을것이라고 하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포사격이 끝나자 그이께서는 명포수들을 만나보아야 하겠다고 하시며 그들을 모두 교양실로 부르시였다.

빠진 군인이 없는가를 일일이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장내를 둘러보시며 우리가 녀성부대를 조직한것은 남자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체 녀성

들에게 녀성들도 능히 싸움을 할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주자는데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녀성부대를 조직하는것은 전민무장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유사시에 후방에 남는 녀성들과 로인들이 힘을 합치면 후방을 능히 보위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항일혁명투쟁시기 녀성들이 잘 싸우던 이야기도 들려주시였다.

이날 녀성군인들은 당의 군사로선관철에서 녀성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그이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겨안으며 혁명의 총을 잡고 조국보위초소에 선 자기들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더욱 가슴벅차게 절감하였다.

(2)

희천땅의 녀지배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 87(1998)년 10 월 20 일 희천려관을 찾아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곳 려관을 찾으시게 된데는 깊은 사연이 깃들어 있다.

희천려관의 지배인을 비롯하여 여기 봉사자들이 고난의 행군시기에 자체로 부업기지를 잘 꾸리고 손님들에 대한 봉사를 잘할뿐아니라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생활보장을 스스로 맡아가지고 그들이 어려운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아무런 불편을 모르고 나라의 기계공업발전에 적극 기여하도록 성의껏 돌봐주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참 좋은 동무들이라고, 자신께서 희천시를 현지지도하실 때 희천려관에도 꼭 가보시겠다고 은정넘친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배인의 안내를 받으시며 남새밭과 남새저장움, 2 호돼지우리 등 려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희천려관에 와보니 이곳 종업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후방기지도 잘 꾸리고 일을 많이 하였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우에서 대주면 더 좋고 대주지 않아도 자체의 힘으로 해낸다는 각오를 가지고 일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는데 희천려관일군들이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일을 아주 잘하였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려관관리운영에서 나서는 자그마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친어버이심정으로 헤아려보시며 자동차, TV, 랭동기를 보내주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떠나시기에 앞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배인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앞으로 려관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계속 일을 잘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대회연단에도 내세워주시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78(1989)년 11월 19일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당시)을 찾으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녀성관리위원장의 안내를 받으시며 농장원들이 살고있는 문화주택구획을 돌아보시면서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미곡협동농장은 위대한 수령님의 관심속에 있는 농장이라고, 이 농장은 기계화수준이 높다고, 아마 전국적으로 기계화수준이 미곡협동농장만큼 높은데가 별로 없을것이라고, 미곡협동농장은 정말 공산주의리상촌으로 꾸려졌다고, 우리 나라의 모든 협동농장들이 다 미곡협동농장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농장에서 농사도 잘 짓고 낟알털기와 량곡수매까지 빨리 끝낸것을 보면 여기 농장원들이 정말 용타고 치하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미곡협동농장에서 해마다 농사를 잘 짓고있는것은 기계화수준이 높고 토지정리가 잘되였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로력적 성과를 두고 대견함을 금치 못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관리위원장에게 뜨락또르기름은 제때에 보장받는가, 비료는 얼마나 확보되였는가를 물으시며 새해 영농준비와 관련한 실태를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새해 농사차비를 미리부터 잘 갖출데 대하여 가르쳐주시고나서 말머리를 돌려 전국농업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미곡협동농장원들이 이번에 전국농업대회를 한다는것을 알면 기뻐할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다가 관리위원장더러 농장에서 농사를 잘 지은 경험을 가지고 전국농업대회때 토론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하여 관리위원장은 전국농업대회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보살피심속에서 큰 농장의 관리위원장,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김일성**훈장수훈자, 로력영웅으로 자라난데 대하여서와 농장에서 논벼 정당수확고를 높인 자랑찬 성과에 대하여 토론을 하게 되였다.

새벽에 만나신 봉사일군

어느날 수도의 새벽거리를 승용차로 달리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느한 살림집구역에서 딸랑딸랑 울려오는 방울소리를 들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곧 차를 세우게 하시고 방울소리가 들려오는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거기서는 깨끗한 위생복을 산뜻이 입은 녀인이 김이 모락모락 새여나오는 커다란 늄통을 실은 손수레옆에서 살림집들을 향해 방울을 울리고 있었다.

잠시후 살림집현관들에서는 밥짓던 차림의 녀인들이 몰려와 제각기 그릇에다 무엇인가 받아가지고 가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무엇을 파는가고 물으시자 위생복차림의 녀인은 국을 판다고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무는 인민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을 한다고 높이 치하하시고 국만 팔지 말고 인민들의 구미에 맞는 시원한 김치며 물고기자반, 산나물채를 비롯한 여러가지 부식물가공품도 만들어 아침저녁 이렇게 팔아주면 인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거리를 한바퀴 빙 둘러보시고 그 길로 인민생활부문을 맡은 한 일군을 만나시였다.

그이께서는 아침마다 방울소리를 울리며 국을 파는 판매원의 소행을 이야기하고 나시여 우리는 이런 일군을 그저 스쳐지나지 말고 그들의 심

장속에 간직된 인민에 대한 갸륵한 복무정신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그리고 모든 봉사일군들이 그런 정신으로 일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아무리 보아야 바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며

주체 57(1968)년 8 월 초순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어느 한 상점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잡화매대앞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매대를 들여다보고 계시다가 상점책임자에게 세소상품이 떨어지지는 않는가고 물으시였다.

떨어지지 않고 잘 공급된다는 그의 대답을 들으시면서도 그이께서는 여전히 매장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아무리 보아야 바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였다.

그 순간 그는 대답을 못하고 매장을 훑어보았다. 그 자신도 그때 바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있었던것이다.

당황해하는 그를 보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바늘은 작지만 인민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잡화이라고 하시면서 작은 상품이라고 하여 소홀히 생각하고 관심을 돌리지 않으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된다고 타이르시였다.

그는 죄스러움속에서도 감동을 금치 못하며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보았다.

그곳 상점에 숱한 일군들이 들려갔지만 그들은 다 요란스러운 천이나 옷 같은데 관심을 두며 분점을 화려하게 꾸릴 생각은 하였으나 이렇듯 잡화매대의 바늘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돌려준적은 없었던것이다.

어린이들을 훌륭히 키워야 한다고 하시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 61(1972)년 5 월 말 어느날 량

강도를 현지지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혜산시 혜장탁아소를 몸소 찾아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탁아소를 돌아보시면서 그곳 일군들이 탁아소를 깨끗하고 아담하게 잘 꾸린데 대하여 치하해주시면서 탁아소관리와 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위생문화사업을 하느라고 며칠째 아이들을 받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보육원에게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은 어린이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키우고 또 녀성들이 마음놓고 일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일인데 위생문화사업때문에 아이들을 받지 않는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깨우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심중한 어조로 우리가 혁명을 하고 건설을 하는것도, 위생문화사업을 하는것도 다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라고 하시면서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을 한걸음 늦추면 조국의 전진이 열걸음 떠진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조직사업만 잘 짜고들면 아이들의 보육교양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위생문화사업을 잘할수 있을것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행기형태를 온전히 갖추지 못한 장난감비행기를 보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어린이들을 공산주의미래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우겠다는 립장과 관점이 바로 서있다면 놀이감을 하나 만들어도 그들의 지적발전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도록 잘 만들었을것이라고, 어린이들에게 놀이감을 아무렇게나 만들어주면 그들이 자라서 무엇을 만들어도 그런 식으로 만들게 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렇기때문에 보육원들은 말과 행동에서 언제나 어린이들의 거울이 되여야 하며 보육교양을 위한 직관물을 하나 만들어도 그렇고 침대와 창문틀에 뼁끼칠을 해도 그렇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심리세계와 지적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깨우쳐주시였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건강관리와 위생관리에도 세심한 관심을 돌려 그들을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거듭 타일러주시였다.

처녀시절은 꽃시절이라고 하시며

주체57(1968)년 7월말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느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부대의 전투준비와 군인들의 생활정형 그리고 신입병사들에 대하여 료해하시던 과정에 신입병사들가운데 외국어에 남다른 소질을 가진 녀병사가 있다는것을 아시게 되였다.

일군들이 무심히 말씀드린 신입병사의 소질을 두고 못내 대견함을 금치 못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친히 그를 만나보자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를 만나신 자리에서 이름과 나이며 건강상태에 대하여 알아보시고나서 아버지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가 돌아왔다는데 언제 귀국했으며 지금은 어데서 무슨 일을 하는가고 차근차근 물으시였다. 그리고 그의 희망에 대하여서도 물으시였다.

한없이 친절하고 소탈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물으심에 어느 정도 어려움도 잊어버린 그는 군사복무기간에 당원의 영예를 지니는것이 제일 큰 소망이라고 숨김없이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으나 혹시 위대한 장군님께서 입대한지 불과 몇달밖에 안되는 그가 주제넘은 욕심을 부린다고 나무람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시며 동무가 당원이 되는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당원의 영예를 지니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차근차근 이야기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녀성들에게 있어서 처녀시절은 꽃시절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사람이 한생을 값있고 보람있게 살자면 청춘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일을 많이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료리차림표에 깃든 이야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 55(1966)년 4 월 어느날 친히 전화로 옥류관의 어느 한 접대원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옥류관에 나오시겠다고 하시면서 접대과장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동무가 직접 료리차림표를 준비해보라고, 동무의 료리

차림표작성수준을 시험치자고 하시였다.

옥류관에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에게서 료리차림표를 받아드시고 하나하나 살펴보시고나서 동행한 일군들에게 이 동무가 작성한 차림표에 따라 만든 음식이 어떤지 한번 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차림표가 원만하지는 못하지만 처음으로 작성한것치고는 괜찮다고, 오늘 시험은 합격이라고 하시면서 크게 웃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접대원들은 차림표도 작성할줄 알아야 한다고, 그래야 손님들의 심리와 요구에 맞게 접대를 잘할수 있다고 깨우쳐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료리차림표를 잘 짜자면 봉사대상의 식성과 구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차림표를 잘 짤수 있는 방도를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차림표에 있는 매 음식과 료리의 영양가에 대하여서도 그에게 물으시였다.

그가 그에 대하여 대답을 올리자 그이께서는 잘 알고있다고 하시면서 접대원들은 음식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자재의 량과 종류, 특성을 알고있어야 하며 료리의 카로리분석도 할줄 알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료리차림표는 모든 접대원들이 다 짤줄 알아야 한다고, 접대원들은 개별적인 손님들을 위한 료리차림표뿐아니라 국가연회보장을 위한 료리차림표까지도 짤줄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접대원들이 료리차림표를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 봉사수준을 한계단 높여나갈 구체적인 방도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직물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방도를 가르쳐주시며

주체 55(1966)년 8월 14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평안북도의 삭주직물공장을 찾아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직포직장을 돌아보시면서 녀성들이 불편없이 헐하게 일하게 되면 공장에 더욱 정을 붙이게 되고 주인된 자각을 가지고 일을 더 열성적으로 할것이며 그 과정을 통하여 어엿한 로동계급으로 자라나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배인으로부터 지금 로동자들이 직포기를 4대씩 다루는

데 앞으로는 6 대씩 다룰수 있다는 대답을 들으시고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그에게 지금 공장에 처녀들이 몇명이나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지배인은 공장이 조업한 초기부터 있는 처녀들이 32 명 된다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조업초기부터 있는 처녀들이 30 여명이면 그들만 잘 키워도 큰 력량이라고, 그러니 그들이 고착되여 일하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지배인은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기능공들을 한명씩 말아 삭주지구의 총각들과 결혼시켜주고있다고 말씀드리였다.

그이께서는 아주 좋은 일을 한다고, 기능공들을 고착시키려면 그들속에서 교양사업을 잘하는 한편 처녀들이 다른 고장으로 훌 날아가지 않게 공장에서 말아 짝을 무어주는 일도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공장에는 가정부인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것만큼 그들을 고착시키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래야 그들의 기술기능수준과 제품의 질도 높아지고 기업관리도 잘해나갈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오늘 당이 제시한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실현하자면 우리 나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해야 한다고 하시며 그들을 사회에 적극 진출시키고 여러 부문에 고착되여 주인답게 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녀성관리일군의 탄복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 56(1967)년 9 월 25 일 문덕군 립석협동농장(당시)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풍년이 든 열두삼천리벌을 바라보니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것 갈다고 하시며 가을걷이정형에 대하여 알아보시였다.

그때 이곳 농장에서는 가을걷이를 시작하기는 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내밀지는 않고있었다.

이해 가을따라 청명한 날씨가 계속되는데다가 그해에 들어 첫 찬서리

가 내린다는 《한로》도 아직은 10 여일이나 앞에 있었다. 다 먹어둔 농사나 다름없는데 여름내 미루어오던 농장의 생산건물들에 대한 보수작업도 마무리한 다음에 와닥닥 달라붙어 며칠사이에 가을걷이를 끝내자는것이 그들의 계획이였다.

이에 대하여 누구도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없었다.

녀성관리위원장은 이런 사실을 위대한 장군님께 그대로 말씀드리였다.

그의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을 날씨가 좋다고 하여 가을걷이를 늦잡아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벼가 다 익었는데 가을걷이를 다그쳐야 한다고, 가을걷이를 늦잡다가 우박피해를 받으면 큰 일이라고, 알곡을 더 낼수 있는 예비는 곡식을 익는족족 베고 빨리 터는데도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녀성관리위원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가을걷이를 다그쳐 끝내겠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면서도 날씨가 이처럼 좋은데다가 절기를 놓고보아도 설마 우박이야 내리랴 싶은 생각은 없지 않았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온 농장이 떨쳐나서 단 며칠사이에 가을걷이를 앞당겨 말끔히 끝낸 다음날이였다.

전날까지 청청하던 하늘에 갑자기 먹장같은 떼구름이 밀려오더니 때아닌 우박이 쏟아져내렸다.

이삭만 거둬들이고 대는 그대로 남겨놓은 신명산둔덕의 강냉이밭이 잠간사이에 쑥밭처럼 된것을 목격한 녀성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사람들모두는 위대한 장군님이시야말로 천기를 내다보신다고 감탄해마지 않았다.

(3)

헤아려보신 교육자의 진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 101(2012)년 7 월 14 일 경상유치원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유치원의 2 층계단에 올라서려고 하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계단바닥에 시선을 멈추시였다.

매 계단층마다에는 어린이발바닥모양이 그려져있는것이 유표하게 보였다.

유치원을 한창 꾸릴 때 일부 일군들은 발바닥그림을 보고 조잡하다고, 보기에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는데 유치원 원장은 그것을 퇴치하지 않았던것이다.

원장은 긴장해서 머리를 숙이고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한동안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발바닥모양이 정말 신통하다고, 착상이 기발하다고 하시며 원장에게서 이윽토록 시선을 떼지 못하시였다.

원장의 마음은 뜨거워났다.

흔히 유치원시기의 아이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활동적인 성미를 가지고있다. 끝없이 조잘거리고싶어하는가 하면 큰소리로 웃기 좋아하고 조용조용 걷기보다는 껑충껑충 뛰기 잘한다.

장난꾸러기시절의 자유분망한 동심을 다루기는 쉽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어린이들의 그 동심에 맞는 교양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던 끝에 발바닥그림을 착상하게 되였던것이다.

그렇게 해놓으니 이전에는 몇번씩이나 일깨워주어도 제 마음대로 마구 다니던 아이들이 시키지 않아도 우측통행을 꼭꼭 하였다. 결국 발바닥모양의 통행표식이 하루에도 몇번씩 《오른쪽으로 다녀야 합니다.》라고 목이 쉬도록 자주 강조하던 자기들의 목소리를 대신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렇게 해놓으니 어린이들에게 우측통행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아도 그들이 이 표식물을 밟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우측통행질서를 저절로 지킬것이라고 하시며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에게 교통질서를 지킬데 대한 교양을 자연스럽게 하고있다고 치하하시였다.

녀맹이 일을 잘한다고 하시며

주체 101(2012)년 11 월 18 일,

이 날은 뜻깊은 첫 어머니날을 맞으며 진행된 제 4 차 전국어머니대회 참가자들이 꿈결에도 뵈옵고싶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은 영광의 날이며 조선민주녀성동맹(당시)이 창립된 때로부

터 67 돐이 되는 잊을수 없는 날이기도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대회참가자들에게 오래도록 손을 저어주시고 때로는 앞줄에 서있는 어머니들의 손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여러차례 자리를 옮겨가시며 수천명에 달하는 참가자들과 일일이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문득 녀맹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을 몸가까이로 불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그에게 오늘 자신께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큰일이 날번 했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나오시지 않으셨더라면 어머니들이 평양을 떠나지 않았을것이라고 스스럼없이 말씀올렸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바빠서 나오지 못할걸 나왔는데 나오길 잘했다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녀맹일군은 기념촬영을 마치고 떠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온 나라 어머니들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모든 녀성들이 사회와 가정앞에 지닌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함으로써 **김정은**동지의 혁명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갈 결의를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더운 눈길로 그 일군을 바라보시며 녀맹이 일을 잘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녀성당일군에게 보내주신 인사

주체 102(2013) 년 7 월 11 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품속에서 재생의 길에 들어선 금야군의 신혼부부인 고금성, 차효심이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고 사랑의 친필을 안겨주시였다.

고금성, 차효심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린 편지에는 조국이 겪는 시련을 외면하고 잘못된 길에 들어섰던 자기들이 병든 자식에게 더 마음쓰며 따뜻이 품어주는 어머니당의 손길에 이끌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안착된 생활을 하게 된 사연이 적혀있었다.

당조직에서 자기들을 홀어머니와 함께 모여살게 해주고 여러가지 생활용품도 마련해준 이야기, 뜻깊은 태양절날 결혼식상을 받고 눈물을 쏟던 일이며 육친의 심정으로 따뜻이 돌보아준 녀성당일군의 모습에서

어머니당의 모습을 새겨안던 일들도 격정속에 터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의 품이 있어 세상에 두번다시 태여난 행복한 부부로, 사회주의 큰집에서 만복을 누려가는 새 식솔이 되였다고 하면서 그들은 아들딸을 낳아 훌륭한 총대감으로 내세워 제일 좋은 내 나라를 굳건히 지키고 빛내이는데 적은 힘이나마 바쳐갈 굳은 결의를 피력하였다.

이들이 올린 편지를 보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동무들의 결혼을 축하한다고, 아들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잘살기 바란다고 따뜻한 회답서한을 보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들부부뿐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할데 대한 당의 뜻을 정히 받들어 고금성, 차효심부부를 당이 바라는 참된 길로 이끌어준 그곳 녀성당일군에게도 정말 고맙다는 은정어린 친필을 보내주시였다.

값높은 평가-불굴의 녀성혁명가

주체 104(2015)년 6 월 21 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녀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의 비행훈련을 보아주실 때였다.

꿈결에도 그리운 경애하는 그이께 초음속전투기를 타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여드릴 시각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훈련하고 또 훈련해온 녀성전투비행사들은 그이께서 안겨주신 담력과 배짱을 안고 창공으로 날아올라 자기들의 비행술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녀성전투기비행사들의 단독비행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나어린 처녀들이 정말 용타고, 하늘의 꽃이라고, 건군사에 처음으로 녀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이 태여났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녀성전투기비행사들의 훈련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시면서 저렇게 용감무쌍한 훈련모습을 보니 대단히 기쁘다고, 남성들도 타기 힘든 초음속전투기를 처녀들이 단독으로 탄다는것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성과이라고 거듭 치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은 첫 녀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이 태여난날이라고, 이 소식이 전해지면 온 나라 특히 우리 녀성들이 기뻐할것이라고, 동무들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의 장한 딸, 불굴의 녀성혁명가

들이라고 거듭거듭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들을 곁에 세우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군인가족들앞에서 하신 사랑의 연설

주체 103(2014)년 12 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군인가족예술소조종합공연을 보아주시였다.

공연이 끝나자 그이께서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의 열광의 환호에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걸음을 옮기시는 그이를 우러러 군인가족들이 터치는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그런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무대로 오르시여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오늘 사진촬영장에서 보고싶고 사랑하는 나의 전우들의 안해들이며 어머니들인 동지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면서 우리 당을 굳게 믿고 따르는 동지들의 깨끗한 마음에 감사하고 또한 동지들이 지닌 남다른 혁명열의, 혁명적락관주의를 보고 대하면서 받은 충격이 너무 크고 꼭 인사말을 전하고싶어 나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저렇듯 강의하고 따뜻하고 다정하고 미더운 저 동지들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전우들의 안해들, 위대한 우리 민족의 장래를 떠메고나갈 우리 후대들의 다심한 어머니, 총잡은 남편들과 한전호에서 우리 혁명을 사수해나가는 믿음직한 혁명의 부사수들, 우리 혁명의 영원한 작식대원들이겠구나 하고 생각하니 혁명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신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우리 혁명무장력은 결코 강위력한 현대적인 타격수단들을 갖추고있어 강대한것이 아니라 이처럼 부사수들이 남편사수들곁에서 뒤바라지를 하고있기에 인민군대가 그 어떤 동란속에서도 끄떡

하지 않고 당과 혁명을 억척같이 보위해가는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고있다는것을 새삼 새겨안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동지들의 눈빛에서 말없는 기대의 목소리를 들으며 동지들의 믿음과 기대를 한시도 잊지 않고 동지들의 사랑하는 남편들과 자식들이 틀어잡고있는 총대인 우리의 혁명무장력을 최고사령관으로서 영원한 승리의 길로 더 잘 이끌어나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였다고 하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연설은 군인가족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리였다.

동지들과 같은 강인하고 위대한 녀성혁명대군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조국의 커다란 자랑이라고 하시며 그이께서는 누가 보건말건 말없이 남편들의 뒤바라지를 하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동지들이 흘리고있는 순결한 량심의 땀방울들은 혁명의 피방울인양 우리 혁명의 맥동을 더해주며 더 윤택한 앞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오게 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심없이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지지해주는 동지들에게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린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끝으로 모두 건강하고 화목하고 언제나 남편들과 자식들에게 힘이 되여주기를 바란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전체 인민군군인가족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드린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최상의 평가-애국과학자

주체 104(2015)년 6 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느 한 과학연구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한 녀성과학자의 연구개발정형을 료해하시였다.

주체적인 생물농약을 연구완성하고 공업적인 방법으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토대를 갖추어놓았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너무도 기쁘시여 연구원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그를 몸소 만나주시고 연구과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누가 보건말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의 길, 과학탐구의 길을 걷고있는 애국자들을 만나게 되여 정말 기쁘다고 하시면서 어려운 난관이 걸음걸음 막아서는 과학연구사업에 한생을 다 바친다고 해도 그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일이기에 웃으며 끝까지 가야 한다는 각오를 안고 첨단수준의 생물농약을 연구개발한 연구원의 과학자들은 애국과학자들이라고, 그들의 애국적량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에 드리는 훌륭한 선물을 마련한 이곳 과학자들을 업어주고싶다고, 이 세상 모든것을 다 안겨주고싶은 심정이라고 하시며 생물농약연구개발과 생산의 공업화실현에 적극 기여한 공로있는 일군들과 과학자들에 대한 평가사업을 크게 조직하고 10 월 10 일 경축행사에 특별손님으로 초대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한생을 바치고있는 이런 과학자들을 만난것을 보면 자신께서 정말 행운을 타고난것 같다는 가슴뜨거운 말씀을 하시였다.

눈섭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은 판매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 105(2016)년 10 월 17 일 새로 건설한 류경안과종합병원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병원은 우리 인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병원이라고, 자신께서는 이미전부터 안과전문치료도 하고 안경봉사도 할수 있는 다기

능화된 안과종합병원을 하나 건설하려고 마음먹었다고, 안과종합병원을 세계선진수준으로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려는것이 자신의 소원이였으며 자신께서 인민을 위하여 꼭 하고싶었던 일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며 병원의 곳곳을 돌아보시였다.

병원이 훌륭하게 꾸려진것이 하도 기쁘시여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던 그이께서는 안경상점 봉사원들의 실력을 검토해보아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안경상점에 들어서시였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판매원이 안경을 골라주는것을 보자고, 오늘 한번 검토해보자고 하시며 판매원을 보고 한 일군에게 안경을 골라주라고 이르시였다.

지배인은 그이께 판매원을 소개해드리면서 저 동무가 안경봉사부문에서 9년동안 일해온 전문가이라고 말씀드리였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그런가고, 오늘 자신께서 시험쳐보겠다고 하시였다.

판매원이 얼른 안경 한개를 골라 한 일군에게 끼워주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그이께서는 안경을 어떻게 골랐는지 설명해보라고 하시였다.

판매원이 그이께 직업상 안경이 작으면 안되기때문에 그 안경을 골랐다고 말씀드리였다.

판매원의 이야기를 들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안경상점 봉사자들은 사람들의 얼굴생김새를 보고도 안경을 고를줄 알아야 한다고, 봉사자들은 눈섭이 진하거나 연한 사람, 눈과 눈사이의 간격이 넓거나 좁은 사람을 비롯하여 사람들의 얼굴생김새에 맞는 안경을 봉사할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신심을 얻은 판매원이 제꺽 다른 안경을 골라 한 일군에게 끼워주었다.

그것을 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건 어떻게 골랐는가고 물으시였다.

판매원은 눈섭이 연해서 진한 색으로 골랐고 땀이 나도 부식되지 않게 수지다리로 선정했다고 말씀올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 판매원에게 눈섭전문가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 안경을 골라주는데서 정확한 표상

을 가지지 못하고있던 판매원이 방금 한 일군에게 안경을 골라준것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가르치심대로 하였던것이다. 그런데 그이께서는 눈섭전문가라는 이 세상에 없는 칭호까지 안겨주시니 판매원에게서는 경애하는 그이이시야말로 우리 모두의 위대한 스승이라는 고백이 저도모르게 흘러나왔다.

2. 은혜로운 사랑과 크나큰 믿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녀성들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시고 돌우에 꽃도 피우신 사랑의 화신이시다.

절세위인들께서는 녀성들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며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시였다.

절세위인들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믿음이 하도 은혜롭고 숭고한것이여서 전설같은 일화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주체의 조국의 품에 안겨 나라의 꽃, 가정의 꽃, 생활의 꽃으로 떠받들리는 조선녀성들은 참으로 행복하다.

(1)

새 사단의 탄생과 첫 녀성중대

항일혁명투쟁시기 새 사단의 편성과 함께 많은 녀대원들이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에 들어왔다. 그들은 총을 잡고 아버지, 어머니, 오빠를 학살한 원쑤놈들을 쳐부시고 부모형제들의 원한을 풀고싶어하였다.

그들의 이러한 심정을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녀대원들로 부대를 하나 따로 무어주기로 결심하시고 지휘관들에게 의견을 물으시였다.

지휘관들은 선뜻 말씀을 올리지 못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혼성부대가 만강부근에 도착하였다. 혼성부대라고 하지만 그속에 4～5 명의 대원들만이 남자였고 나머지는 전부 녀성들이였다.

모두를 반갑게 맞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기로 오게 된 경위와 행군도중에 있은 일들을 하나하나 물으시고나서 그들을 통해 녀성들에 대한 일부 지휘관들의 그릇된 생각을 깨우쳐주실 결심을 하시였다.

남대원들중에서 힘이 제일 세다고 하는 한 동무를 부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녀대원이 지고온 배낭과 무기들을 지게 하시였다. 그러

시고는 그 짐과 총을 가지고 휴식없이 얼마만한 거리까지 행군할수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10 리쯤 쉬지 않고 갈것 같다는 대원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번에는 다른 녀대원의 짐과 무기 2 자루를 지우시며 얼마나 갈수 있는가고 또다시 물으시였다.

5 리쯤 갈수 있다는 대원의 말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녀대원에게 그 짐을 지고 얼마나 행군해왔는가고 하시였다.

쑥스러워하며 대답을 못 드리고 머리를 수그리는 그를 대신하여 옆에 있던 녀대원이 거의 100 리를 행군해왔다고 말씀드리였다.

녀성중대조직을 의문시하던 지휘관들은 말할것도 없고 남대원들모두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녀대원들이 진행한 전투담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하게 하시였다.

그 전투담을 들은 남대원들모두가 녀대원들의 용감성과 대담성, 견인불발성에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결국 녀성들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녀성중대조직을 달갑지 않게 여기던 지휘관들은 자기들의 잘못된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수 없었다.

주체 25(1936)년 4 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만강의 수림속에서 사령부를 찾아 각지에서 모여온 녀성들로 중대를 조직하시였다.

녀성중대결성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먼 후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녀성중대는 우리 나라 군건설력사상 처음으로 생겨난 녀성전투구분대였다고, 녀성중대의 탄생은 수천년동안 고질화되여왔던 남존녀비사상과 인습을 타파하고 녀성들의 정신적지위와 사회적지위를 실제적으로 남성들과 동등한 수평선상에 올려세운 하나의 사변이였다고 회고하시였다.

항일전장에 퍼진 향기

항일혁명전쟁의 첫시기 투사들은 화장품을 곱게 보지 않았었다. 전투에서 로획하는 전리품들속에는 화장품이 섞여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유격대원들은 개울속에 집어던지든가 발로 막 짓뭉개놓군 하였다.

혁명의 사령부가 소왕청 마촌에 자리잡고있던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원들에게 이제부터 누구든지 화장품을 버리지 말자고, 우리의 곁에도 녀성들이 있지 않는가고, 유격구의 녀성들은 녀성이 아닌가고, 우리의 녀대원들과 부녀회원들보다 더 훌륭한 녀자들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고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오직 혁명에만 전심전력하는 조선녀성들을 돈보이게 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절절한 교시는 대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리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고 유격대원들이 목숨걸고 구해온 화장품들을 받아안은 근거지의 녀성들은 기뻐서 어쩔줄 몰라하였으며 그때부터 소왕청유격구에서는 분내가 돌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은 근거지의 녀성들은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고 유격구를 사수하는 투쟁에 목숨까지 서슴없이 바치였다.

혁명군의 꽃들에게 안겨주신 열렬한 축하

주체30(1941)년 3월 7일 저녁식사가 끝난 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원들앞에서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3월 8일은 전세계근로녀성들의 전투적명절인 3.8국제부녀절이라고 하시면서 이날을 맞으면서 조선녀성들의 선봉투사이며 인민혁명군의 꽃인 녀성동지들을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의 이름으로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최후를 마친 조선인민혁명군 녀성투사들을 뜨겁게 회고하시면서 우리는 녀성투사들이 이룩한 업적을 세상에 널리 자랑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조선인민혁명군 대오에 서있는 녀대원들은 모두가 다 우리의 자랑이고 조선녀성들의 귀감이며 동무들의 위훈은 조국력사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모두다 조국의 해방과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싸워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자 장내는 폭풍같은 환호로 들끓었다.

첫 녀성항공륙전대원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조국해방의 최후결전을 준비하고있던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녀대원들이 락하훈련을 하고있는 훈련장에 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애기어머니들과 체질상 약한 녀대원들이 훈련하는것을 보시고 동무들의 열의는 좋으나 락하훈련이 육체적부담이 큰것만큼 다시한번 검진을 받고 훈련에 참가하는것이 어떻겠는가고 물으시였다.

이때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께 녀대원들도 육체적으로는 좀 부족점이 있지만 사상적으로 준비되여있기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락하훈련만 잘하게 되면 훌륭한 항공륙전대원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반만년력사에는 남자옷을 입고 준마를 몰아가며 외래침략자들과 싸운 용감한 녀걸들은 있었지만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떨어져내려 적과 싸운 녀성항공륙전대원은 없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웃음어린 어조로 다 합격되였다면 자신께서도 어쩔수 없다고, 동무들의 혁명적기개와 슬기를 믿는다고 하시였다.

그 믿음에 보답하자고 모든 녀대원들이 떨쳐나섰다. 락하훈련이 생각처럼 쉬운것은 아니였지만 모두가 부단한 반복훈련을 통하여 필요한 준비를 갖추어나갔다. 그리하여 얼마후에는 그들도 비행기를 타고 락하하는 훈련에 들어가게 되였다.

김정숙동지께서 맨 처음으로 비행기에서 뛰여내리시는 모습에서 커다

란 신심과 용기를 얻은 대원들모두가 하나둘 차례로 뛰여내렸다.

훈련시작부터 녀대원들의 락하훈련을 지켜보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은 우리 나라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락하한 첫 녀성항공륙전대원들이라고, 조선녀성의 슬기와 굳센 의지를 잘 보여준 첫 녀성항공륙전대의 성과적인 락하를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시였다.

광명을 찾은 녀성

주체 36 (1947) 년 8 월 어느날 평강군에서 한 녀성농민이 땅을 분여받도록 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평양에 찾아왔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를 만나주시였는데 그 녀성은 조선글을 모르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왜 글을 알아야 하는가를 차근차근 일깨워주시고 이제 고향에 돌아가면 올해말까지 제손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따뜻이 이르시였다.

난생처음 은정넘치는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그 녀성은 열심히 글을 배워 석달만에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가 문맹에서 벗어났으며 까막눈이던 마을의 녀성농민 수십명도 글을 읽고 쓰게 되였다는 소식을 자랑스럽게 편지로 써서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소박한 편지를 받아보시고 매우 만족해하시며 높은 치하를 담은 격려의 회답편지를 보내주시였다.

사실 오랜 세월 사람축에도 들지 못하고 비천한 존재로 버림받아오던 평범한 농촌녀성이 국가령도자에게 편지를 올린것도, 수령의 회답편지를 받아안게 된것도 이전 세월같으면 상상조차 할수 없는 경이적인 사변이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떠세우시는 새 조선이 인류력사가 아직 알지 못하는 혼연일체의 화원,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이 될것이라는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또 하나의 선언이였다.

땅의 주인이라고 하시며

조국이 해방된 그해 10 월 어느날 대동군인민들이 마련한 환영모임에 참석하시고 돌아오시던 길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느 한 국수집에 들리게 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인집아주머니를 몸가까이 부르시여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그때 녀인은 다른 고장에서 지주집머슴을 살다가 생활이 좀 펴일가 해서 이곳에 이사와 농사를 하면서 국수장사를 하고있었다.

국수집주인의 지난 시기 생활경위를 료해하신 그이께서는 그간 고생이 많았겠다고 하시면서 토지는 자기의것을 가지고 농사를 했는가고 물으시였다.

지주의 땅을 얻어부치고 소작농사를 하였다는 그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자리를 옮겨앉는다고 고생을 면할수는 없다고 하시였다.

녀인은 그이께 고생을 좀 하여도 소작을 부쳐 머슴신세를 면했으니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주를 그냥 두고서는 우리 농민들이 살길을 찾아 자리를 열번 옮겨앉거나 머슴신세를 백번 면한다고 하여도 잘살수 없다고, 농민들이 잘살려면 소작제도를 없애고 제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녀인은 한탄섞인 어조로 제땅에서 마음껏 농사를 지어보는것이 평생소원인데 제땅이 없으니 그 소원을 이루어볼수 없다고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말씀올리였다.

그이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며 왜 농민들이 제땅이 없다고 하는가, 땅

은 원래 농민의것이다, 왜냐하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매고 낟알을 거두어들이는 농사일은 다 농민들이 하기때문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무엇때문에 죽도록 농사지어서 곡식을 지주에게 가져다주어야 하는가고 물으시였다.

녀인은 땅을 소작내여 농사를 지었으니 땅임자에게 소작료를 바칠수밖에 없다고 말씀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땅임자라 하고 여러번 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국수집주인과의 이야기는 계속되였다.

그이께서 올해 소작료는 어떻게 하겠는가고 하시자 녀인은 가을에 소작료를 8 할로 물기로 계약하였다는데 대하여서와 지주의 땅을 부치였으니 그 계약을 어기면 징역을 살거나 땅을 떼운다고 기가 죽은 소리로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단호하신 어조로 앞으로는 왜놈정치때의 《법》이나 《계약》은 다 무효로 된다고, 나라의 주인이 된 우리 로동자, 농민들이 이제부터 자기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땅은 밭갈이하는 농민의것이다！》, 《소작료는 안물어도 된다.》 하고 우리가 법을 만들면 된다고, 땅임자는 지주가 아니라 아주머니와 같이 땅을 다루는 농민이라고 하시였다.

그후 녀인은 정말로 땅의 주인이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실시해주신 토지개혁의 덕분으로 제땅을 가지고 농사를 마음껏 짓게 된것이였다.

이 땅의 주인들의 력사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과거의 부엌데기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최고인민회의 제 1 기 제 1 차회의가 진행되고있던 주체 37(1948)년 9 월 어느날 한 녀성대의원은 회의도중 휴식시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반갑게 그를 맞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동무가 우리 나라 헌법채택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제기하였다고 치하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감격에 목메여 흐느끼는 그에게 동무는 조선녀성들의 과거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겠는데 과거의 부엌데기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되였으니 인민의 충복답게 일을 잘하라고 하시였다.

어제날의 부엌데기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진정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를 수령으로 모시였기에 이런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조선에 수없이 꽃펴날수 있은것이다.

첫 녀성대의원이 받아안은 은혜로운 사랑

주체 36(1947)년 2 월 평양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북조선 도, 시, 군인민위원회대회가 소집되였다.

그때 함경북도의 대표들속에는 어린애를 업고 올라온 한 녀성대의원도 있었다. 그는 해방전 길주군의 한 탄광에서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막장에 들어가 탄을 캐던 리선녀동무였다. 조국해방은 그에게도 따뜻한 봄빛을 안겨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속에 그는 성인학교에 다니며 글을 배우고 남자들과 꼭같은 권리를 가지고 건국사업에도 나서게 되였으며 인민들의 선거에 의하여 대의원으로까지 되게 되였다.

이런 그가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에서 만나뵙게 될줄이야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는가.

함경북도에서 녀성탄부가 대표로 왔다는것을 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없던 지난날에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탄을 캐던 그가 이제는 탄광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 된것이 너무도 대견하시여 회의도중 휴식시간에 친히 그를 불러주시였다.

그가 어린아이를 업고 대회에 왔다는것을 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아이가 아들인가, 딸인가, 나이는 몇살이며 앓지는 않는가도 다정히

물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대회장에 걸려있는 구호도 읽어보게 하시고 글을 배워 쉬운 정치서적들도 읽는다는 그의 말을 들으시고 못내 기뻐하시며 앞으로 공부도 더 잘하고 일도 잘하라고 따뜻이 일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음성이 귀전에 계속 울려오고 뜨거운 사랑이 끝없이 물결쳐와 그는 온밤 잠을 이룰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나라일로 바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음날 또다시 자기를 만나주시고 다심하신 은정을 돌려주실줄은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

이튿날 회의의 첫 휴식시간때 어린 딸을 업은 그는 아이가 울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을 안고 휴계실 한쪽에 조용히 서있었다.

그런데 어느새 그를 알아보시였는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환하신 미소를 지으시며 그의 곁으로 다가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더니 어디 내가 한번 안아볼가라고 하시며 아이를 받으시여 자신의 품에 안으시였다.

어린애가 귀엽게 생겼다고 하시며 꼭 껴안으시고 아이를 한참이나 애무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포장한 물건을 그의 앞에 내놓으시며 변변치 못하지만 담요인데 선물로 받으라고, 어린애가 추워하겠는데 씌워주라고 교시하시였다

리선녀동무는 친부모에게서도 받아안지 못하였던 그 사랑에 목이 콱 메여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였다. 한참후에야 포장지를 풀어보니 그안에는 담요와 흰 녀자고무신, 학습장과 비누가 들어있었다.

어린 딸에게 포근한 담요를 씌워주고 난생처음 신어보는 흰고무신에 뜨거운 눈물을 쏟고 또 쏟으며 그는 지난날 버림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을 하늘처럼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대해같은 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할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은정을 받아안은 리선녀동무는 대회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 새 조국건설의 길에서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였으며 인민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였다.

녀성농민이 옮겨앉은 자리

주체42(1953)년 1월 어느날 평양의 모란봉지하극장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전국농민열성자대회가 열리였다.

이 대회에는 안악군 오국리에서 온 한 녀성농민도 참가하였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일가친척 16명을 적들에게 학살당하였으나 굴하지 않고 열성껏 농사를 지은 그는 수십가마니의 전선원호미와 애국미를 바친 다수확농민이였다.

녀성농민의 애국적헌신성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대회에서 주석단에 앉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녀성농민이 보내온 벼이삭을 대회장에 들고나오시였다.

소담하게 여문 그 벼이삭을 참가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것이 다수확농민이 농사지은 벼이삭이라고 그리도 기뻐하시였다.

쌀이 있어야 전쟁에서 이길수 있다고 하시면서 전시알곡생산을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휴식시간이 되자 그를 부르시여 크나큰 은정을 거듭 안겨주시였다.

잠시후 대회가 다시 시작되여 녀성농민이 주석단의 자기 자리에 가앉으려고 할 때였다.

한 일군이 다가와 위대한 수령님께서 급한 일때문에 회의에 계속 참가하시지 못한다는것과 자신께서 앉으셨던 자리에 그를 앉히라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는 사실을 전하였다. 그러면서 일군은 어서 자리를 옮겨앉으라고 권하는것이였다.

(아니, 수령님께서 앉으시는 자리에 내가 어떻게？…)

한가슴으로 받아안기에는 너무도 벅찬 감격,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위대한 사랑앞에 그는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평범한 농촌녀성이 수령님 자리에 앉다니… 세상에 있을 법이나 한 일인가.)

그가 이런 생각으로 제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일군이 다시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부하신대로 꼭 그 자리에 가앉아야 한다고 하면서 녀성농민의 손을 이끌었다.

해방전 머슴살이를 타고난 팔자로 여기던 녀성농민, 해방의 새봄을 안겨주시고 땅을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이 너무 크고 고마와 전선원호미와 애국미를 바치는 일에 앞장섰을뿐인 그는 꿈같은 이 사실앞에서 끝끝내 참고참았던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남편과 4살잡이 아들애를 잃고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그였다.

수많은 시선이 그에게로 쏠리였다.

주석단에 함께 앉았던 사람들도, 일군의 안내를 받아 자리를 옮겨앉는것을 본 참가자들도 뜨거운 눈물을 소리없이 흘리였다.

그 눈물은 언제나 인민에게 모든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눈물이였다.

조선의 평범한 녀성농민이 국사를 의논하는 대회의 주석단에 올라 위대한 수령님의 자리에 앉은 전설같은 이야기는 준엄한 전화의 불길속에서 이렇게 태여났다.

녀성혁명가의 전형으로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체 41(1952)년 1 월 전국농민열성자대회가 열리였다.

전시식량증산투쟁에서 혁혁한 위훈을 세운 19 살의 애어린 처녀 김락희동무는 대회장에서 남자들도 힘에 부쳐하는 보잡이에 나서 이악하게 투쟁한 결과 전례없는 풍작을 마련하고 햇벼 29 가마니를 **김일성**장군님께 삼가 올린 사실을 가지고 토론을 하였다.

대회휴식시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를 부르시여 손이 다 텄다고, 어린 처녀가 농사를 짓느라고 정말 수고했다고 하시면서 동무와 같은 용감한 동무들이 후방을 지키고있기때문에 우리는 전쟁에서

꼭 승리할수 있다고 확신에 넘쳐 교시하시였다.

불같은 보답의 일념안고 그해 가을에 례년에 없는 다수확을 또다시 안아온 김락희동무는 전쟁승리에 다소나마 이바지하고저 량곡 36 가마니를 전선원호미로 바치고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편지를 올리였다.

처녀보잡이가 올린 소박한 편지를 친히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고 친히 감사문까지 보내주시였다.

김락희동무를 마음속에 새겨두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그의 사업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성장의 자욱을 크게 내짚도록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락희동무가 고향마을에 조직된 첫 농업협동조합의 관리위원장으로 일할 때에는 몸소 몸가까이에 불러주시여 당의 농업협동화방침을 이악하게 실천해가는 그를 격려해주시고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세심히 가르쳐주시며 농촌선구자의 영예를 더욱 떨쳐가도록 따뜻이 이끌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쟁이 끝난 이듬해 봄에는 김락희동무를 미제를 쳐부신 영웅조선의 기상을 안고 외국방문의 길에 오르는 조선대표단의 유일한 농민대표, 녀성대표로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25 살에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은 그를 한개 조합을 책임진 일군으로부터 한개 군, 한개 도의 농사를 돌보는 지도일군으로 내세워주시였다.

평범한 농촌선동원을 인간개조의 선구자로

주체 50(1961)년 1 월 23 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평안남도 승호군 리현리(당시) 당조직이 청산리교시정신에 립각하여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있는가를 알아보시기 위하여 몸소 리당총회를 지도하여주시였다.

보고와 토론을 들으시고 못내 만족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장내를 둘러보시다가 녀성당원들도 토론하라고 하시였다.

그리하여 작업반선동원이였던 리신자녀성이 토론을 하게 되였다.

리신자녀성의 토론을 주의깊게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리신자동무는 뒤떨어진 사람들을 개조하여 일에서 열성을 내게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어 그를 추켜세웠으며 모든 사람들이 우리 당주위에 굳게 뭉쳐 한마음한뜻으로 일하도록 군중속에서 교양사업과 선전선동사업을 진행하였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리신자동무는 말과 행동이 언제나 일치하고 자기의 괴로움과 희생을 돌보지 않고 모든 힘을 다하여 당과 군중에게 복무하였으며 솔선해서 남에게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이 동무는 훌륭한 당원이라고, 우리 당에는 이 동무와 같은 당원이 많다고,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은 강하다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농촌의 이름없는 한 선동원을 시대의 전형으로 내세워주시고 그의 성장을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속에 리신자녀성은 그후 능력있는 농촌관리일군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로력영웅으로 자라나게 되였다.

최고사령부를 보위한 영웅으로

전라북도의 소작농가에서 태여난 고혜순동무는 남편과 함께 반일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서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을 우러러 조국해방의 날까지 혁명투쟁의 길에서 굴함없이 싸웠다.

인민군대에 의하여 서울이 해방된후 고혜순동무는 서울시내무기관(당시)에 입대하여 적들의 음모를 사전에 적발분쇄하는데서 큰 공적을 세웠다.

고혜순동무의 영웅적투쟁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고혜순동무가 아주 용감하게 잘 싸웠다고, 희생을 무릅쓰고 많은 간첩놈들을 잡아냈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최고사령부를 보위한 영웅이라고, 보배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전후에도 고혜순동무는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당의 로선과 방침을 앞장에서 관철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결사옹위의 길에서 고혜순동무가 세운 위훈을 잊지 않으시고 반일애국렬사인 그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하시고 크나큰 믿음과 은정깊은 사랑을 거듭 베풀어주시였다.

녀성포수영웅으로

강원도 평강군에는 리수덕리가 있다.

리수덕, 그는 평강군의 심심산골에서 남편과 함께 포수생활을 해오다가 조국해방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경모의 마음을 안고 주체 36(1947)년 12 월 자기가 사냥한 범의 가죽을 선물로 올린 녀성이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녀성의 몸으로 범을 잡은 리수덕녀성을 만나주시고 그를 높이 평가하시며 조선녀성들은 소박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용감하고 대담하다고, 우리 녀성들이 모두다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선다면 실로 큰일을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해방된 조선의 녀성들은 남자들과 함께 새 조국건설의 튼튼한 기둥이라고 하시였다.

다음날 아침 리수덕부부를 또다시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의 존함으로 된 표창장과 많은 상금 그리고 사냥총과 사진기를 선물로 안겨주시였다.

영원한 사랑과 믿음은 준엄한 나날에 무적의 힘으로 솟구쳤다.

그는 전쟁이 개시된지 몇달후 적의 군수렬차를 습격하여 71 명의 적

을 살상하였으며 얼마후에는 적《치안대》본부를 공격하여 애국자들을 구원하였다. 그리고 인민군대와 협동하여 진행한 평강군해방전투에서 수많은 적병을 살상하고 무기들을 로획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높이 평가하시여 주체 40(1951)년 4 월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해주도록 하시고 그의 이름을 새긴 권총을 선물로 보내주시는 한량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그가 살던 리도 영웅의 이름으로 불리우도록 해주시였다

그는 오늘도 신미리애국렬사릉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고있다.

첫 녀성비행사영웅으로

해방후 녀성의 몸으로 비행사를 지망해나섰던 태선희동무가 전쟁시기 조선녀성들은 체질상 비행기를 타기 힘들다는 일부 편협한 사람들때문에 제대되였을 때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가 해방된지 몇해되지 않았는데 녀성의 몸으로 비행사가 되겠다고 지망해나섰으니 얼마나 장한 일인가고 하시며 처녀의 소망을 풀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그의 키가 작은것을 헤아리시고 비행발판을 고쳐주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으며 그가 여러차례의 야간폭격전투에서 적들에게 불벼락을 안기였다는것을 아시고 매우 기뻐하시며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하여주시였다.

그리고 주체 40(1951)년 12 월 31 일 밤 그가 적비행장과 인천항폭격전투에 참가하여 위훈을 세웠을 때에는 새해 첫아침 평양으로 부르시여 명절을 함께 보내시였다.

그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실 때 그이께서는 귀중한 처녀비행사에게 줄 사진인데 잘 찍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무려 3 번이나 다시

찍게 하여주시였으며 소형권총을 선물로 주시였다.

조선력사에 빛나는 한페지를 장식한 첫 녀성비행사영웅은 이렇게 태여났다.

영웅간호장으로 불러주시며

주체40(1951)년 6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사령부로 부르신 여러명의 공화국영웅들속에는 한 녀성간호장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선에서 싸우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하시였다.

간호장의 차례가 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랑하는 딸자식을 대하듯 정겹게 바라보시면서 어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다정히 이르시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긴 하였지만 어떻게 말꼭지를 떼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였다. 다른 동무들처럼 적진속에 뛰여들어가 놈들을 무리로 요정낸 일도 없고 적의 화점을 까부시고 부대의 진격로를 열어제낀 영웅적인 전투담도 없는 그였다.

이때 한 군관이 위대한 수령님께 이 동무는 락동강계선까지 나가며 많은 부상병들을 구원하였고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는 부상병들을 업고 부축하면서 최고사령부를 찾아 수천리길을 헤쳐오는 과정에 전우들을 위하여 자기의 피를 아낌없이 바쳤다고 말씀올리였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가 많은 피를 뽑아 부상병들을 구원하였다는데 건강에 지장이 없는가고 친부모의 심정으로 물으시였다.

별다른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그이께서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듯 간호장의 얼굴에 유심한 눈길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그가 포화속에서 부상병들을 업고 부축하면서 한번에 2명씩 구원한데 대하여 높이 치하해주시면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도 남자들 못지 않게 용감하게 싸운 녀대원들이 많았다고, 항일혁명투쟁의 빛나

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나라 녀성들이 지금 전선과 후방에서 헌신적으로 잘 싸우고있다고 못내 기쁘신 어조로 교시하시였다.

많은 시간을 미더운 영웅들과 함께 보내시며 식사도 나누시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도 들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녀성간호장에게도 사랑의 손목시계와 멸적의 글발이 새겨진 기관단총을 선물로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의 포화가 멎은 후에도 전화의 나날에 만났던 그를 잊지 않으시고 영웅간호장으로 불러주시며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으로 그의 삶을 빛내여주시였다.

처녀사양공을 시대의 전형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김정순동무를 처음으로 아신것은 《함남일보》에 실린 기사를 통해서였다.

기사에는 주체 51(1962)년 2월 얼음진 강을 건느다 빠진 7명의 학생들을 구원한 함남땅의 한 평범한 처녀사양공의 소행자료가 간단히 서술되여있었다.

기사를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을 부르시여 이 처녀가 아니였더라면 일곱명이나 되는 녀학생들이 어떻게 될번 했는가고, 장하다고, 이 동무야말로 영웅이라고 하시며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이 사실을 중앙신문들에 크게 소개하여 청년들속에서 그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조직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리하여 주체 51(1962)년 4월 29일부 《로동신문》1면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김정순동무의 소행을 평가하여 보내주신 편지와 함께 그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실렸으며 2면과 3면에 걸쳐 그를 소개하는 기사와 사진이 크게 게재되였다.

공화국영웅, 가렬처절한 전화의 나날 조국을 위하여 목숨바친 용사들

에게도 다 안겨주지 못한 금별메달이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누구나 부닥치면 할수 있다고 평범하게 생각한 20 살의 처녀 김정순동무를 공화국영웅으로, 조선로동당원으로, 시대의 전형으로 내세워주시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원형으로 한 연극 《아침노을》을 친히 보아주시였다. 그리고 공연이 끝난 후에는 김정순동무를 만나주시고 일군들앞에서 그의 위훈을 또다시 높이 평가해주시였으며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사연깊은 이름 《덕복》

주체 81(1992)년 9 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평양시 교외에 있는 어느 한 시험포전을 찾으시였다.

마중나온 일군들속에서 낯익은 한 녀성일군을 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덕복이》** 하고 친근하게 부르시며 그 녀성일군을 몸가까이에 찾아주시였다.

자기를 찾으실 때마다 다른 일군들에게 하듯이 직위를 부르신것이 아니라 **《덕복이》** 하고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남다른 사랑에 녀성일군은 행복감으로 가슴이 뻐근해졌다.

하면서도 한편으로 의아함을 누르지 못하고 자기가 잘못 듣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하였다.

사실 그의 원래 이름은 복덕이였다.

일생 복을 많이 받고 잘살라는 부모들의 소원이 비낀 이름이였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번 **《덕복》**이라고 이름자를 바꾸어 부르군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덕복》**이라는 이름이 참 좋다고 곱씹어 외우시였다.

그로부터 한해후 황해남도에 나오시여 연백벌을 돌아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녀성일군을 점심식사에 청하시였다.

음식그릇을 그의 앞으로 밀어놓으시며 많이 들라고, 늘 벌에 나가 사느라니 때식이나 제대로 하였겠는가고 하시던 그이께서는 느닷없이 《**덕복이, 덕복이**…》 하고 다시금 그의 이름을 외우시다가 이름이 좋다고 또다시 교시하시였다.

녀성일군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령님께서 부르시는대로 이름을 고치겠다고 정중히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잘했다고, 이제는 이름을 《**덕복**》이라고 세상에 공개하라고 하시면서 덕이 있고야 복이 있다고 하시였다.

그때에야 비로소 녀성일군은 평범한 농장원이였던 자기를 한품에 안아 한개 도의 농사를 책임진 일군으로, 로력영웅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키워주시고 오늘은 또다시 친어버이의 정으로 따뜻이 불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속에는 바로 언제나 인민의 행복과 기쁨에서 삶의 락을 찾으며 그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하는 인민의 참된 충복으로 한생을 빛내이라는 고귀한 당부가 담겨져있다는것을 깊이 깨닫게 되였다.

이런 동무들이 바로 영웅이라고 하시며

제 1 차 전국어머니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크나큰 감격에 겨워 토론하는 한 녀성이 있었다. 그가 바로 부모없는 아이들을 9명이나 데려다키운 리영숙녀성이였다.

그의 토론을 들으시며 제일 기뻐하신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였다. 토론도중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두번씩이나 박수도 쳐주시며 이런 동무들이 바로 영웅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속에 리영숙녀성은 조선로동당원의 값높은 영예를 지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는 크

나큰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해방전 6 남매를 낳은 리영숙녀성의 어머니는 자식들의 어깨우에서 지주집머슴살이의 고된 멍에를 벗겨주지 못한채 서른여섯나이에 《너희들을 낳은 이 어미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사람 못살 그 세월에 어머니의 모성애로는 도저히 지켜줄수 없었던 리영숙녀성의 삶이 따사로운 태양의 빛발아래 영웅으로 떠받들리우는 참된 행복과 더불어 끝없이 꽃펴나게 되였다.

녀성들의 일터에 맞게 손색이 없도록

주체 63(1974)년 11 월의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한 방직공장을 찾아주시였다.

조업이래 두번째로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대적인 설비들을 능숙하게 다루며 일손을 다그치고있는 녀성로동자들의 모습을 대견스럽게 바라보시며 걸음을 옮기시다가 한곳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시였다. 그러시고는 한 녀성기대공을 친히 부르시여 덥지 않는가, 실내온도는 몇°나 되는가, 여름에는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가에 대하여 하나하나 물어보시고나서 일군들에게 랭풍기를 놓고 온도를 조절할 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이미 공장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취해주신 조치에 따라 흡진장치와 환기장치가 되여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랭풍기까지 놓도록 배려하여주시였으니 그 사랑, 그 은정은 정말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이 크고 뜨거운 것이였다.

이날 공장을 다 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방직공장 애기어머니들이 젖먹이러 다닐 때 리용할수 있는 차문제를 해결해줄데 대하여, 합숙을 더 지을데 대하여, 복도출입문을 마주 향하게 내지 말고 옆으로 내여 복도의 온도를 보장할데 대하여서도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끝까지 보아주신 편지

주체58(1969)년 7월 어느날 장강군 종포리를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민들의 생활형편을 알아보시려고 길옆의 한 농가를 찾으시였다.

가족은 몇이며 지난해 분배는 얼마나 받았는가, 문화주택이 마음에 드는가 등 생활의 구석구석을 세심히 헤아려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들이 군대에 나갔다는것을 아시고 아들에게서 편지와 사진은 자주 오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한없이 인자하신 그이앞에 집주인인 녀성농장원은 어려움도 다 잊고 군대에 나간 아들한테서 편지와 사진이 자주 오는데 이제는 키도 크고 몸도 튼튼해졌으며 얼마전에는 당원의 영예를 지니였다고 자랑삼아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들한테서 온 편지가 있으면 어디 좀 보자고 이르시였다.

녀인이 올리는 편지를 받아드시고 봉투에 씌여있는 주소를 보시던 그이께서는 아들이 최전연에 나가있다고 대견해하시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편지를 다 읽어주시였다.

그지없이 소박하고 꾸밈없는 글줄마다에서 당의 품속에서 어엿하게 자라는 이 나라 천만자식들의 름름한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시종 환한 웃음을 짓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들이 참 똑똑하다고, 이제는 나이도 들었겠는데 며느리감을 잘 봐두었는가고 물으시였다.

녀인은 아들이 조국이 통일되기 전에는 장가를 들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씀올리였다.

그 순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안색을 흐리시며 한동안 남쪽하늘가를 바라보시다가 아들이 군대에 나가 입당도 하고 군무생활에도 충실하다고 하니 기쁘겠다고, 좋은 며느리감을 보아두었다가 아들이 군대에서 제대되여 돌아오면 인차 잔치를 해주라고 장래까지 축복해주시였다.

조국보위는 최대의 애국이라고 하시며

주체 73(1984)년 11 월초 어느날 저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군대의 한 녀병사를 만나주시였을 때의 일이다.

꿈결에도 뵙고싶던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게 된 녀병사는 너무도 기뻐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그러는 그의 어깨를 다정히 쓸어주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무생활정형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아보시였다.

그이의 물으심에 대답을 올리면서 녀병사는 아버지도 인민군대에서 정치일군으로 복무한다고 자랑삼아 말씀드렸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버지가 군대이면 부녀가 다 군복을 입었구만라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이윽고 녀병사를 정겹게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혁명의 군복을 입고 조국보위의 성스러운 초소에 서는것은 공화국공민으로서 최대의 애국이라고 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녀병사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려주시며 자신께서는 동무들을 믿고 혁명사업을 한다고 사랑을 담아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몸소 마련해주신 뜻깊은 상봉

전쟁의 포화가 타번지던 주체 40(1951)년 11 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군부대의 한 녀병사를 만나시였던 때에 있은 일이다.

꿈결에도 뵙고싶던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뵈옵게 된 녀병사는 솟구치는 격정을 안고 그이앞에 정중히 나섰다.

그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이름은 무엇이며 나이는 몇살인가, 언제 입대하였으며 고향은 어디인

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물으시였다.

녀병사가 올리는 대답을 다 들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린 처녀가 총을 잡고 싸우니 정말 용타고 그의 등을 다정히 두드려주시면서 집에서 소식이 오는가고 물으시였다.

녀병사는 선뜻 대답을 드릴수가 없었다.

사실 그는 1 년전 가을에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고향을 떠나온 후부터는 집소식을 전혀 모르고있었다. 때문에 집걱정으로 남몰래 속을 태우던 녀병사였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지 몰라 망설이던 그는 머밋거리다가 입대한 후로는 집소식을 모르고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니 걱정스럽겠구만라고 하시며 안색을 흐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걱정을 끼쳐드린것이 죄송스러워 몸둘바를 몰라하던 녀병사는 집을 떠나온지 얼마 되지 않기때문에 괜찮다고 말씀올리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녀병사에게 앞으로 군무생활을 잘하라고 이르신 다음 그와 헤여지시였다.

이런 일이 있은지 1 년이 지난 주체 41(1952)년 12 월 중순 녀병사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또다시 지니게 되였다.

이날 어느 한 회의를 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1 년전에 만나시였던 녀병사를 알아보시고 회의휴식시간에 그를 부르시였던것이다.

녀병사를 다정히 맞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득 동무의 고향이 경흥이라고 하였지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자기의 고향을 기억해두고계시였다는 생각에 감격하여 녀병사는 저도모르게 큰소리로 《예.》 하고 대답을 올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가우신 표정을 지으시며 고향에 있는 어느 한 탄광의 지배인을 아는가고 물으시였다.

뜻밖의 물으심에 그가 잠시 어리둥절해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

무의 아버지와 같이 일하던 탄광지배인인데 왜 모르는가고 하시였다.

그제서야 생각이 떠오른 녀병사는 그 지배인이 해방전에 자기 아버지와 탄광에서 함께 일하였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그에게 잠간 기다리라고 이르시더니 몸소 휴계실밖으로 나가시여 한 일군을 데리고 들어오시였다.

녀병사는 휴계실에 들어온 일군이 자기가 고향에서 자주 보던 지배인이라는것을 대뜸 알아보았다.

오래간만에 고향사람을 만나게 된 녀병사는 일군의 두손을 부여잡고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이런 뜻깊은 상봉이 마련되게 된데는 가슴뜨거운 사연이 있었다.

한해전에 녀병사와 만나신 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집소식을 모르고있는데 대하여 늘 마음쓰시며 전선시찰의 길에서 인민들을 만나시면 혹시 그와 한고향사람이 없는가를 알아보시였다.

그러시다가 이번 회의를 준비하시면서 함경북도에서 온 대표들과 담화를 하시던중 마침 녀병사의 아버지가 일하던 탄광에서 온 지배인이 있다는것을 아시고 이렇게 뜻깊은 상봉을 마련해주시였던것이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고 그들의 상봉을 이윽토록 지켜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에게 오늘 고향친지를 만났으니 지배인동무가 정말 기쁘겠다고, 오늘 회의도 끝났으니 래일은 지배인동무가 이 동무와 함께 푹 휴식도 하면서 고향소식도 전해주고 그의 집에 소식도 전해주라고 다정히 이르시였다.

이렇게 되여 녀병사는 고향사람으로부터 집소식을 직접 듣게 되였으며 그를 통해 고향에 편지도 전할수 있었다.

(2)

사랑의 직승기

주체 64(1975)년 2 월 11 일 서해바다가 한 포구에서는 뜻하지 않은 불상사가 생겼다.

한 처녀어로공이 조개잡이를 하러 나갔다가 어느새 들이닥친 밀물을 헤쳐나오지 못하여 얼음장을 타고 바다우에 뜨게 되였다.

시간이 흘러 썰물때가 되자 얼음장은 망망한 먼 바다로 걷잡을수없이 흘러갔다. 얼음장들이 바다를 뒤덮은데다가 날이 캄캄하게 어두워져 처녀를 구원할 길은 막막하였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보시던 일을 뒤로 미루시고 왜 이제야 보고하는가고 엄하게 책망하시면서 즉시 전화로 조선인민군의 한 공군부대를 출동시키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어로공처녀가 얼음장을 타고 표류되였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직승기를 동원하여 그를 구원하여야 하겠다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로공처녀를 구원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려야 하겠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당중앙위원회의 일군들을 현지에 파견하시는 한편 주변의 조선인민군부대들과 경비대들까지 총동원하도록 비상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그리하여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전례없는 규모의 구조작업이 벌어지게 되였다.

말그대로 온 나라가 떨쳐나선 구조작업이였으나 시간이 퍽 지난 뒤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일군들은 밤을 지새우며 소식을 기다리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전화로 아직 처녀를 찾지 못했다는것을 보고드리지 않을수 없었다.

전화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기어이 구원하여야

한다고, 구원하지 못하면 차라리 보고하지 말라고 격하신 음성으로 교시하시였다.

군인들도 수산부문일군들도 비행사들도 다시 바다에 나가 망망한 대해를 수십수백번이나 거듭 훑었다.

드디여 구조작업이 시작되여 만 20 시간만에 처녀어로공은 구원되였다. 눈물없이 볼수 없는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속에서는 목메여 부르는 만세의 환호가 터져올랐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시고 누구보다도 기뻐하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세쌍둥이와 산모를 위하여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잃은 슬픔으로 온 나라가 피눈물속에 잠겨있던 주체 83(1994)년 7 월 12 일이였다.

이날 구름장을 헤치며 한대의 비행기가 분계연선의 자그마한 마을을 향하여 날고있었다.

그곳에서 태여난 세쌍둥이를 실으러 가는 비행기였다. 비행기에는 세쌍둥이를 소생시킬수 있는 모든 의료설비들과 의약품들이 실려있었다.

며칠전 7 월 4 일 분계연선지구의 어느한 마을에서는 아들 세쌍둥이가 태여났다. 태여나긴 하였으나 그들의 생명이 위급했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강력한 의료진과 함께 비행기를 보내여 세쌍둥이를 평양산원으로 옮겨다 소생시킬데 대한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런데 그날부터 하늘은 구름으로 덮이여 간단없이 비를 뿌리기 시작했다. 비행기는 날지 못했고 평양산원의 의사들은 급히 렬차로 먼저 떠났다.

그러던 12 일 아침, 점차 푸른 하늘이 열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 푸른

하늘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비행기가 날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잃은 슬픔과 비애로 가득찬 하늘을 헤가르며 세쌍둥이를 위해 날으는 비행기.

비행기가 착륙장에 내렸을 때 이곳에 달려온 마을사람들과 인민군군인들은 울음바다를 펼치고있었다.

사람도 강산도 이 나라의 모든것이 가슴찢는 비통함에 잠겨있는 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끊임없이 베풀어지고있으니 어찌 울지 않을수 있겠는가,

얼굴에 비낀 병색까지 가려보시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농업부문 현지지도의 분망한 나날을 보내고계시던 어느해 가을날이였다.

그이께서는 이날 어느한 농장을 찾으시고 농사형편과 농장원들의 생활을 일일이 료해하시였다. 그러시다가 관리위원장의 얼굴에서 병색을 가려보시고는 못내 걱정하시며 그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알아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관리위원장의 얼굴색이 좋지 못하다고 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키우시는 농촌의 핵심녀성간부를 잘 돌보아주어야 하겠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녀성관리위원장의 건강상태를 알아보시고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우리가 그의 건강을 돕는데 무엇을 아끼겠는가고, 필요한 약들과 보약을 다 보내주자고, 그가 건강한 몸으로 일을 잘하게 되면 수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고 교시하시였다.

친부모도 매일 보는 딸자식의 얼굴에서 알아내지 못한 병색을 한순간에 가려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녀성일군의 병을 책임지고 고쳐주어야 한다고 따뜻이 이르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래일 차를 보내여 관리위원장동무를 평양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잘해주도록 해야 하겠

다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친부모의 심정그대로 그를 병원에 입원시켜주시고는 그가 불편이 있을세라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으며 때로는 일군들을 보내시여 병세도 알아보시고 귀중한 약과 갖가지 과일도 보내주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 그의 건강은 회복되였다.

평양산원에 보내주신 산꿀과 곰열

주체 74(1985)년 2월 초순 어느날 일군들은 2월의 뜻깊은 명절을 맞으며 전국각지의 인민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지성품들을 어느한 곳에 진렬해놓고 위대한 장군님께 보고를 드리였다.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진렬장소로 나오시여 지성품들을 눈여겨 보시였다.

그 가운데는 산꿀이 담긴 사기단지들도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옛날부터 산꿀은 산모의 건강회복에 특효가 있다고 일러왔는데 여기에 있는 산꿀을 모두 평양산원에 보내주자고 하시였다.

하지만 일군들은 인민들의 지성이 어린 그 귀중한 지성품을 어떻게 그렇게 하랴 하는 생각에 여전히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나라없던 지난날에는 우리 녀성들이 아이를 낳아도 산꿀과 같은 귀한 약재는 써보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지난날 산후탈때문에 고통을 겪은 우리 녀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다른 생각일랑 말고 이 산꿀을 다 평양산원에 보내주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며 아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희망인데 산모들이 건강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고 아이들이 건강해야 조국의 미래가 양양하다고 하시면서

아마 이 산꿀을 산원에 돌렸다는것을 알게 되면 이것을 정성껏 마련하여 보내준 인민들도 기뻐할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때였다.

한 일군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인민들이 보내온 곰열을 보관하고있다는데 모두 얼마나 되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이 그 량을 말씀드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만한 량이면 적지 않은것이라고 못내 기뻐하시며 곰열도 산꿀과 함께 모두 평양산원에 보내주라고 하시였다.

곰열을 보내게 된것이 아쉬워 머뭇거리는 일군을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곰열은 산모들이 임신중에 쓰면 안되지만 해산뒤끝에 쓰면 어혈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 하고 열을 내리게 하며 입맛을 돋구어준다고 하시면서 특히 산후탈로 인한 부인병치료에는 곰열을 따를만 한 약재가 없다고 그 효력까지 가르쳐주시였다.

인민들이 위대한 장군님께 올린 산꿀과 곰열은 이렇게 되여 평양산원에 전달되게 되였다.

민홍단

주체 89(2000)년 3 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홍단군종합농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이날 서두분장의 제대군인마을에 들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제대군인가정에 들리시여 신혼부부의 생활을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보살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부엌의 찬장도 열어보시고 방안의 이불장, 옷장도 하나하나 열어보시였다.

제대군인부부는 그 살뜰한 인정에 눈시울을 적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집을 주시고 철따라 입을 옷들과 여러채의 이불, 지어 부엌세간과 T

V까지 보내주시여 아무 걱정없이 살고있다고 대답올렸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낯선 고장에 와서 새 살림을 폈는데 왜 불편이 없겠는가고 하시며 소금과 간장, 된장이 제대로 공급되는지 알아보시고 제대군인의 안해가 오래지 않아 해산을 하게 된다는데 그 준비는 되여있는가도 알아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에서 살다가 당의 호소를 받들고 대홍단에 달려와 제대군인과 가정을 이룬 그 녀성을 매우 기특하게 여기시면서 언제 해산을 하게 되는가고 다정히 물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그는 딸자식이 친부모에게 말씀드리듯 넉달후에 몸을 풀게 된다고 대답올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럼 미리 준비를 잘해 놓아야 하겠다고 하시며 환히 웃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소탈하신 모습에 어려움을 다 잊은 녀성은 장군님의 손을 꼭 잡으면서 7월달에 해산을 하게 되는데 아이이름을 지어주시였으면 하는 소원을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주시면서 벌써 이름을 짓잔 말이지라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날 저녁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낮에 농장을 현지지도하신 일들을 상기하시다가 제대군인가정에 들리시였던 이야기를 꺼내시였다. 그이께서는 제대군인의 안해가 아이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였는데 못지어주었다고 하시면서 아무래도 이름을 지어주어야겠다고, 자신께서 이름을 좀 생각해보았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원래 아이 이름은 아버지가 짓게 되여있지만 제대군인안해의 간절한 부탁인것만큼 그들의 미래를 축복해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자고 하시면서 아들을 낳게 되면 대홍이라고 하고 딸을 낳게 되면 홍단이라고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앞으로 아들과 딸을 낳아 아들이름은 대홍이라고 하고 딸이름은 홍단이라고 짓게 되면 대홍단이라는 뜻이 되게 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성이 민가이므로 아들이면 민대홍이라고 하고 딸이면 민홍단이라고 부르면 뜻이 있고 좋을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던 그이께서는 원래 좋기는 오누이쌍둥이를 낳아 대홍이, 홍단이라고 하면 더 리상적이라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잊을수 없는 약혼식날에

주체 55(1966)년 5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어느한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있는 한 녀성을 만나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올리는 인사를 받으시고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시면서 여간만 반가와 하지 않으시였다.

그를 정겹게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이젠 제법 대학교원의 틀이 잡히는것 같다고 하시며 어느 강좌에서 일하고 있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림상의학부 소아과학강좌에서 실습강의도 하고 앓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치료사업도 하고있다는 그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아주 중요한 강좌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시였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소아과학은 좋은 학문이라고 하시며 어린이들이 모두가 건강하여 무럭무럭 자라면 우리 조국은 더욱 부강해지고 우리 민족은 보다 번영하게 될것이라고, 그러니 어린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성스러운 사업을 하는 동무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예로운가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오랜 시간 그에게 의사들이 지녀야 할 풍모에 대하여 차근차근 깨우쳐주시였다.

퍼그나 시간이 흘러서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좀 더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허락치 않으니 후에 또 만나자고 하시며 그를 바

래주려고 따라 나서시다가 그에게 다가서시여 조용히 이제는 가정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는 금시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어찌할바를 몰라하다가 《아직은…》하고 얼버무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볍게 웃으시더니 아직 정해놓은 대상이 없는것 같은데 자신께서 한 동무를 소개해주겠다고 하시면서 그를 문밖에까지 바래워주시였다.

몇달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날에 하신 약속대로 그의 배우자를 친히 정해주시고 약혼식까지 마련해주시였다.

그들의 약혼식에 참석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친히 축배까지 드시며 축하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결혼식날자를 꼭 알려달라고 당부하시고 떠나시였다.

하지만 그들은 당과 국가사업전반을 돌보시기에 1분 1초가 새로우신 그이께 어떻게 자기들의 사사로운 일에까지 마음을 쓰시게 하랴 싶어 결혼식날자를 알려드리지 않았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떻게 아셨는지 결혼식날에 한 일군을 보내시여 자신께서 꼭 가보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가게 되여 미안하게 되였다고 하시며 친필축하편지와 함께 귀중한 선물까지 보내주시였다.

애기어머니의 감격

눈보라치는 어느 겨울날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아이를 업고 급하게 걸어가는 한 녀인을 보게 되시였다.

그이께서는 녀인의 곁에 몸소 차를 세우시고 이 추운 날씨에 아이를 업고 어디로 가는가고 친절히 물으시였다.

평성으로 간다는 녀인의 말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차를 타고 함께 가자고 다정히 말씀하시였다.

고마운 인정미에 눈굽이 뜨거웠으나 소박한 녀인은 사양하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이를 업고 이 추운 날씨에 어떻게 걸어간다고 그러는가고, 어려워말고 어서 차에 오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편히 앉으라고 이르시고는 평성에는 무슨 일로 가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녀인은 며칠째 시름시름 앓던 어린애가 간밤에 갑자기 병이 더해져서 병원에 가려고 역으로 나갔는데 그만 한발 늦어 기차를 놓쳤기때문에 조급해지는 마음을 어쩔수 없어 다음 기차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걸어서 떠났다고 사연을 아뢰이였다.

어린애가 숨가쁘게 신음소리를 내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린애의 머리도 짚어보시고 맥박도 가늠해보시였다.

그러시더니 열이 몹시 난다고 하시며 운전사에게 차를 좀 더 빨리 몰라고 이르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린것이 말못하니 그렇지 얼마나 아프겠는가고 하시며 앓으면 인차 치료를 받아야지 절대로 병을 길러서는 안되며 병이 자라면 고치기 힘들다고 하시였다.

몹시 걱정하시던 그이께서는 어린애를 잘 키우자면 밥도 시간 맞추어 적당히 먹이고 옷도 절기에 맞추어 입히며 필요한 운동도 시켜야 한다고 차근차근 일깨워주시였다.

승용차가 어느덧 병원으로 들어서는 길목에 멎어서 녀인은 차에서 내리였다.

무엇이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한 녀인은 깊숙이 머리를 숙여 인사를 드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서 병원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시였다. 그러시며 그이께서는 돌아갈 때에는 기차를 놓치지 말고 꼭 타고가도록 서둘라고 따뜻이 이르시였다.

녀인은 그분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이심을 끝내 알아보지 못하였다.

후날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를 방안에 환히 모실 때에야 그 녀인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으며 무한한 행복에 겨워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오래도록 우러렀다.

처녀들의 첫날옷감문제를 두고서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 89(2000)년 6 월 21 일 비단천생산기지인 녕변견직공장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약산단, 다색단, 문공단을 비롯한 질좋은 비단천이 필필이 쏟아져내리는 직포직장들을 돌아보시면서 제품들을 몸소 쓸어보시며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또한 금실은실이 아롱다롱 무지개를 수놓고 갖가지 꽃무늬가 엮어지는 직포공정을 유심히 살피시다가 손수 실을 만져보기도 하시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단순히 생산공정에 깊이 관심하고계시는줄로만 알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3 직포직장에 들어서시여 한 제품을 보실 때였다.

문득 그이께서는 공장일군에게 이 천으로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고 물으시였다.

그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며 그렇지만 이 천으로는 처녀들의 첫날옷감이 제격이겠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비단천 견본품들이 진렬되여있는 곳에 이르시여서도 우리 처녀들을 더 곱게 내세울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라고 거듭 말씀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동행한 일군들에게 인민들이 좋아하는 비단천생산을 급격히 늘여 결혼식하는 처녀총각

들과 생일 70 돐을 맞는 로인들에게 비단옷, 비단이불을 공급해주자고 그리고 대홍단과 포태종합농장에 간 제대군인들에게도 비단천을 보내주자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포도주에 깃든 사랑

지금으로부터 퍽 오래전 어느해 봄날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날론공장 준공식장에 몸소 나오시였다.

준공식이 끝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부르시여 비날론공장 건설에 참가하였던 로동계급의 로력적위훈을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성대한 연회를 차려주자고 하시였다.

연회를 앞두고 그 준비사업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던 어느날이였다.

일군들이 연회준비를 서두르는데 수수한 차림새를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연회준비장소로 나오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의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시며 연회준비정형을 알아보시였다.

로력혁신자들을 위한 연회인것만큼 잘 차리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손꼽히는 료리사들을 동원하여 제가끔 있는 솜씨를 다 발휘하도록 하였기때문에 연회상은 풍성하게 마련되고있었다.

연회상에 놓일 음식의 가지수와 그 차림새를 일일이 헤아려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연회음식차림표가 있으면 가져오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친히 차림표의 내용과 상우의 음식가지수를 하나하나 확인해보시면서 로동계급을 위해 차리는 연회인것만큼 그들의 특성에 맞게 잘 차리도록 일군들을 깨우쳐주시였다.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녀성로력혁신자들을 위하여 따로 마련한 연회상으로 안내해드리였다.

연회상우에는 녀성들이 즐기는 갖가지 감미로운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그이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둘러보시며 상이 괜찮다고, 녀성들의 구미에 맞겠다고, 수령님을 모시고 이렇게 훌륭한 상을 마주하고 앉으면 녀성로력혁신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하시였다.

그러시던 그이께서는 상우를 유심히 살펴보시더니 왜 녀성들의 상에는 마실만한것이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들은 녀성들의 상우에는 사이다를 놓기로 하였다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상에는 조선녀성들처럼 성미가 순박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슬기롭고 용감한 녀성들은 없다고 하시면서 비날론공장건설에서도 우리 녀성들은 참으로 잘 싸웠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연회에 녀성로력혁신자들도 참가하는것만큼 포도주도 놓아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이날 뜻깊은 연회상에는 녀성들을 위해 위대한 장군님의 각별한 사랑속에 마련된 포도주가 오르게 되였다.

몸소 마련해주신 연회상과 사랑넘친 축배잔

4.25 녀자배구선수단이 조국의 영예를 빛내일 결의밑에 맹렬한 훈련을 다그치고있던 어느날 저녁이였다.

선수들이 훈련을 마치고 다음날 훈련준비를 하면서 휴식하고있는데 한 일군이 달려와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그들모두를 불러주셨다고 알려주는것이였다.

방안에 들어선 그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날 녀자배구선수들이 땀흘리며 훈련하는 대견한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위해 몸소 연회상을 차려주시였던것이다.

그이께서는 배구선수들의 건강과 사업에서의 성과를 위하여 오늘 저

녁에 많이 들라고 하시면서 몸소 음식그릇들을 그들쪽으로 옮겨놓아주시였다.

이름있는 한 녀자배구선수가 마음을 다잡고 위대한 장군님께 충성의 결의를 담은 말씀을 드리였다.

두서없는 그의 결의를 다 듣고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꼭 그렇게 하리라고 믿는다고 하시며 그에게 몸소 축배잔을 들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그가 축배잔을 드는것을 보시고나서 선수들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 선수들은 아무것이나 다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래도 더 좋아하는것이 있지 않는가고, 축구선수들이 좋아하는것은 아는데 배구선수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선수들쪽으로 몸을 돌리시고 단고기국을 좋아하는가 국수를 좋아하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한없이 소탈하신 그이의 물으심에 선수들은 어려움도 잊고 국수를 좋아한다고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옳다고, 땀을 많이 흘리고나면 시원한 국수생각들이 날거라고 하시면서 일군들에게 어서 이 동무들에게 국수를 가져다주라고 이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마련해주신 연회상과 친히 들려주신 축배잔!

그것은 조선의 체육인들에게 그대로 무적의 힘이 되고 슬기가 되게 하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사랑이였다.

구봉령이 전하는 불멸의 일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 89(2000)년 8 월말 어느날 이름없는 산간벽지 구봉령초소를 지켜가고있는 한 가족소대를 찾아주시였다.

그들로 말하면 조국의 이름없는 산중도로에 애국의 한마음을 바쳐가

고있는 자장도 성간군 도로시설대 공훈도로관리원녀성과 그의 가족들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녀성의 몸으로 오래동안 도로관리원을 해왔고 아들, 딸, 사위, 며느리들까지 모두 령길초소에 세운것은 아주 장한 일이라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가족소대원이 10 명이라는데 이런 외진 산골에서 한생을 보낸다는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자기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동무들과 같은 애국자가 많기에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민족이 번영하는것이라고, 동무들의 정신세계는 참으로 고상하고 아름답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우리 령길에서 만난 기념으로 사진을 찍자고 하시면서 가족소대전원을 자신의 곁으로 부르시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가운데 모시고 그와 그의 일가모두가 한식솔처럼 나란히 사진을 찍게 되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뜻깊은 순간 어머니의 팔에 안긴채 잠자는 어린 자식이 하도 안타깝고 민망스러워 흔들어 깨우려는 그 녀성의 딸을 보시고 그냥 놔두라고, 이 다음에 커서 기념사진을 보면 후회할것이라고 하시면서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떨어지기 아쉬워하는 가족소대원들의 심정을 헤아리시여 바쁘신 걸음을 령길에서 오래도록 지체하시면서 그들의 이야기도 허물없이 들어주시고 온 가족이 이렇게 조국과 인민을 위해 복무하니 얼마나 좋은가고, 앞으로도 대를 이어 가면서 령길초소를 지키라고 크나큰 신임이 담긴 말씀을 해주시였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른 고장으로 떠나셔야 할때가 되였다.

바로 그때 공훈도로관리원녀성이 작별인사를 나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손을 꼭 잡고 놓지 못하면서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앞장에서 헤쳐오시느라 고생이란 고생을 다 겪으시였는데 이제부터는 편히 쉬시고 식사도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짬짬이 소를 길렀으니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진정에 가슴이 후더워오르시여 인차 응대를 못하시다가 고맙다고, 성의를 받아들인것으로 알고 그 소를 잘 키워 인민들에게 공급하라고, 그래야 자신의 마음도 기쁠것이라고 다정히 이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감동의 눈물을 머금는 그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면서 우리 인민들이 잘 살게 될 때 자신께서도 마음놓고 잠도 자고 식사도 하겠다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우리모두 더 많은 일을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불굴의 녀성혁명가로

주체96(2007)년 8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정춘실동무가 일하는 전천군상업관리소를 찾아주시였다.

자나깨나 그리던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게 된 정춘실동무는 그이의 두손을 꼭 잡고 장군님을 뵙고싶어 죽을번했다고 자기의 속마음을 그대로 말씀드리였다.

그러는 그의 잔등을 두드려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새 앓지 않았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정춘실동무가 다리를 앓아 고생하는 사실을 두고 늘 걱정이 깊으셨던 그이이시였다.

친아버지앞에 나선 심정이였던 정춘실동무는 병이 다 나았다고 하면서 건강한 자기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싶어 땅을 힘껏 굴러보이기까지 하였다.

그것은 진정 수령과 전사이기 전에 친어버이와 자식간의 혈연의 관계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화폭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단발머리처녀시절부터 70고개에 이르는 오늘까지 변함없이 충실하게 한길을 걸어왔으며 시련의 시기에도 군내 인민생

활향상을 위해 불편한 몸이지만 강한 의지로 원료기지조성을 비롯한 힘겨운 일의 앞장에서 헌신분투해온 정춘실동무에게 열렬한 애국자, 불굴의 녀성혁명가, 참된 인민의 충복이라는 높은 평가를 안겨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수령님의 전사, 제자의 자세와 립장은 정춘실동무와 같이 시작과 끝이 한결같아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탁구선수를 인민체육인으로, 로력영웅으로

어느 한 체육선수단에서 체육기술을 련마하던 박영순선수는 주체 64(1975)년 2 월 인디아에서 진행된 제 33 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개인전 녀자단식경기에서 우승하여 선수권을 보유하였다.

주체 64(1975)년 3 월 박영순선수는 뜻깊은 행사에 참가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꽃다발을 드리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수고하였다고, 축하한다고 분에 넘치는 치하를 주시고 조그마한 동무인데 세계탁구녀왕으로 되였다고 하시며 앞으로도 이겨야 한다고 고무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그가 수여받은 왕관과 왕띠를 보시며 패권을 쥐였기때문에 탄것인데 어디 써보라고 이르시였다.

왕관을 쓰고 왕띠를 멘 다음 금메달을 목에 걸고 우승컵을 손에 든 그의 모습을 한동안 대견스럽게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쁨을 금치 못하시며 박영순선수와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주체 64(1975)년 9 월의 어느날 인민군대의 한 일군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당창건 30 돐 기념대회에 참가할 대표들의 명단을 보아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탁구선수 박영순동무를 대표로 참가시키기 위하여 기한이 채 되지 않아도 입당시키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박영순동무는 조선로동당 당원증을 받아안게 되였으며 당창건 30 돐 기념대회에 참가하게 되였다.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주체 74(1985)년이였다.

체육발전을 위해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체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더욱 높이며 공로있는 체육인들에게 각 방면의 혜택과 함께 로력영웅칭호를 비롯한 높은 국가수훈을 할데 대한 은정깊은 조치를 또다시 취해주시였다.

이리하여 이미 인민체육인칭호를 받았던 박영순동무는 공화국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게 되였다.

한 녀병사의 소원도 헤아려주시며

언제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한 녀성고사포중대를 찾으시였을 때 있은 일이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대병실에 들리시여 녀병사들과 허물없이 담화를 하시며 그들에게 친어버이의 따뜻한 사랑을 부어주시였다.

그런데 중대군인들속에는 그 영광의 자리에 참가하지 못한 한 녀병사가 있었다. 그는 아침부터 중대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맡겨진 과업을 수행하다나니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중대를 찾으신것을 미처 모르고있었던것이다. 중대에 돌아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정신없이 병실로 달려갔다.

그러던 그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흙이 묻은 작업복차림으로 위대한 수령님앞에 나설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병실에 다가간 그는 창문으로 살며시 안을 들여다보았다.

순간 그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격정이 솟구쳤다. 꿈결에도 그리던 위대한 수령님을 가까이 모시고서도 만나뵙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콱 쏟아져나왔던것이다.

바로 이러한 때 창문쪽으로 시선을 돌리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조용히 다가가시여 왜 울고있는가고 물으시였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중대에 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지 못한다면 평생을 두고 서운해 할것이라고 하시면서 병실에 들어가시여 몸소 녀병사의 군복을 꺼내시여 밖으로 내보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목메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녀병사에게 빨리 옷을 갈아입고 들어오라고 부드럽게 재촉하시였다.

녀병사는 급히 달려가 깨끗한 군복을 갈아입었다. 그런데 그는 구두생각을 미처 못하였기때문에 솜신발을 그대로 신지 않으면 안되였다.

병실현관문앞까지 나오시여 녀병사를 기다리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왜 웃옷만 갈아입었는가고 물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사정을 다 헤아리신듯 솜신을 신을바에는 바지를 입는 편이 훨씬 더 어울린다고 위로해주시면서 몸소 병사의 솜바지에 묻은 흙까지 털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러시고나서 그럼 수령님을 만나뵙자고, 어서 앞서라고 따뜻이 말씀하시며 그의 등을 가볍게 떠미시였다. 그러시고는 그가 병실안에 들어섰을 때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앞자리에서 뵈옵도록 내세워주기까지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으실 때에는 옷차림때문에 망설이는 그에게 일없다고, 어서 나가자고 하시며 몸소 그가 설 자리까지 정해주시였다.

녀성군인들의 노래를 들어주시며

주체 87(1998)년 12 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한 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 있은 일이다.

그날 공장을 돌아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으로부터 공장가까이에 녀성해안포중대의 군인들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 녀성군인들이 자신께서 감나무중대에 갔을 때 화력복무훈련을 하던 군인들이라는것을 아시자 못내 반가와하시였다.

뜻밖에 그이의 부르심을 받고 달려간 군인들은 어찌할바를 몰라하며

그이께 변변한 인사의 말씀도 올리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헤여졌던 딸자식을 만난듯 친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뜨겁게 만나주시였다.

이때 한 녀성군인이 그이께 중대군인들이 즐겨부르는 노래 《내가 지켜선 조국》을 불러드리겠다고 말씀올리였다.

그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퍼그나 지난 때였고 날씨는 몹시 찼다. 더구나 어느 극장도 아닌 공장구내에서였다.

녀성군인들을 정답게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노래를 하겠는가고, 그런데 여기서 부르겠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그렇게 하겠다고 씩씩하게 말씀올리는 녀성군인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일군들도 다 들어보게 어서 불러보라고 이르시였다.

그이께서는 녀성군인이 부르는 노래가 끝났을 때에는 잘 부른다고 하시며 제일먼저 박수도 쳐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자신께서 중대에 갔을 때 있었는가, 노래는 어디에서 배웠는가고 다정히 물어도 보시며 친어버이 심정으로 군인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다심한 사랑에 어려움을 잊은 다른 한 녀성군인이 감나무중대의 한 문학통신원이 쓴 자작시를 읊기 시작하였다.

노래에 이어 시까지 다 들어주신 그이께서는 감나무중대 녀성군인들이 노래도 잘 부르고 시도 괜찮게 읊는다고 다시금 치하하시였다.

또다시 노래를 불러드린 녀성군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디 건강하실것을 간절히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춘을 조국보위초소에 바쳐가는 녀병사들이 더없이 대견하고 사랑스러우시여 그들을 둘러보시며 군사복무를 더 잘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공장구내에 펼쳐진 혼연일체의 감동적인 화폭!

이것은 위대한 어버이와 병사들간에 흐르는 뜨거운 혈연적관계의 감동깊은 화폭이였다.

녀성해안포병들을 잊지 못하시며

주체 84(1995)년 3 월 중순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녀성해안포중대 군인들에게 평양견학을 시킬데 대한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이 평양에 올라왔을 때에는 몸소 평양시견학참관일정계획도 짜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이 동무들이 이번에 평양에 올라온 기념으로 사진들을 찍겠는데 의의있는 기념사진으로 되도록 실력있는 사진사 한명을 녀성군인들에게 붙여주어 그가 군인들과 함께 다니면서 사진을 잘 찍어주며 사진첩까지 만들어주도록 할데 대한 은정깊은 교시도 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해당 부문 일군들속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비상협의회》가 진행되였고 필요한 대책들이 세워졌다.

유능한 사진사 한명이 녀성해안포중대 군인들과 함께 평양시의 여러곳을 참관하면서 기념비적인 건축물들과 풍치수려한 유원지들, 군민의 정을 나누는 상봉모임들과 행사장들, 극장과 영화관들, 푸짐한 식탁을 마주한 식당들에서 수많은 기념사진들을 찍게 되였다.

며칠후 해당 부문 일군들은 그 나날에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중대사진첩과 개인사진첩을 정성껏 만들어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올리였다.

한 일군으로부터 중대사진첩과 개인사진첩을 받아드신 그이께서는 못내 기뻐하시며 사진첩을 한장한장 번져보시였다. 중대사진첩을 보신데 이어 개인사진첩을 펼쳐드신 그이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환히 웃으시기도 하시고 사진배경을 가리키시며 몸소 사진설명도 달아주시였다. 사진구도와 색갈, 인화지의 재질상태도 헤아려보시며 손수 사진첩의 장수를 세여보시던 그이께서는 독사진이 배렬된 맨 앞장을 골라쥐시더니 이 앞장에는 사진을 붙이지 말고 공백으로 남겨두는것이 어떻겠는가고 한 일군에게 물으시였다.

뜻밖의 말씀에 그 일군은 어리둥절해졌다.

그러한 그 일군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후날 녀병사들이 제대되여 시집을 가면 결혼사진들이 생기겠는데 그 결혼사진을 공백으로 남겨놓았던 이 사진첩의 첫장에 붙이면 얼마나 의의있겠는가고 다정히 교시하시였다.

한 녀병사의 앞날을 축복해주시며

언제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민군부대의 어느한 녀성중대를 찾으시여 군인들이 준비한 예술소품공연을 보아주실 때의 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예술소품공연수준이 그만하면 높다고, 혹시 중대군인들속에 전문예술단체에 있다가 입대한 동무들이 있지 않는가고 물으시였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들어온 동무들이라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그런데도 모두가 전문예술인들 못지 않게 노래도 잘 부르고 악기들도 잘 다룬다고,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겠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독창한 군인이 노래를 잘 부른다고 치하하시였다.

부대의 한 일군이 그이께 독창을 한 군인은 2 년전에 함경북도 경원군에서 입대하고 손풍금수는 지난해에 입대하였다고 말씀드리였다.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이곳 중대에 와서 전망성있는 독창가수를 한명 찾은셈이라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평범한 농장원으로 있던 김옥선동무를 데려다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이름있는 성악가수로 키웠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그 병사를 중대정치일군으로 키울수 있겠지만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이나 학원에 보내여 성악가로 키우는것이 더 좋을것 같다고 정을 담아 교시하시였다.

녀병사가 받아안은 은정

언제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감나무중대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대군인들이 보고싶었다고 하시며 그들이 준비한 예술소품공연도 보아주시였다. 공연이 끝난 후 중대의 손풍금수를 친히 만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눈수술하러 간 손풍금수는 언제 오는가고 다정히 물으시며 못내 걱정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토록 마음기울이시는 녀병사, 그는 그이께서 이곳 중대군인들이 더 밝고 락천적으로 생활하라고 보내주신 손풍금수였다.

사연깊은 감나무중대에서 군사복무의 보람찬 나날을 보내던 그는 어느날 뜻하지 않게 눈을 상하게 되였다.

이 사실을 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를 외국에 보내여 치료를 받도록 하시였다. 녀성의 몸으로 귀중한 청춘시절을 조국보위에 바치는것만도 장한 일인데 군사복무과정에 눈이 상하였다는것을 알고도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있을수 없다고 하시며 그의 눈치료를 위해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창 군사복무를 할 나이에 한눈을 다쳐 치료를 받고있는 그 병사의 앞날에 대하여 념려하시면서 다시금 사랑넘친 교시를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 그 은정이 명약이 되여 그 병사는 마침내 광명을 되찾고 조국의 품,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 안기게 되였다.

초소를 찾으신 사연

언제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느 한 초소를 지키고있

는 들꽃중대 군인들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심산속에 아담하게 들어앉은 초소의 곳곳을 일일이 돌아보시며 녀병사들에게 다심한 사랑과 은정을 부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곳 중대는 이미전부터 자신과 인연이 있는 중대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순간 일군들도 녀병사들도 의아함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도 그럴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곳 초소를 찾으신것은 그날이 처음이였던것이다.

그이께서는 몇년전에 내가 최전연에 나갔다가 평양으로 들어가는데 이 령길우에서 들꽃묶음을 든 녀성군인들이 깍듯이 경례를 하였다고, 그들을 지나치면서 나는 심심산골 령길에 웬 녀성군인들이 꽃다발을 들고 서있을가 하고 생각하였다고, 알고보니 그들은 이곳 중대의 군인들이였는데 만수대언덕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꽃다발을 보내려고 평양으로 가는 차들을 기다리고있었다고, 이 중대군인들은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10 년세월 심산속에 피여나는 들꽃들과 자기들이 정성다해 가꾼 꽃으로 다발을 만들어 평양에 올려보냈다고 한다고 추억을 담아 교시하시였다.

그이의 음성은 깊은 감동에 젖어있었다.

전선시찰의 길에서 잠간 띄여보신 평범한 녀병사들의 갸륵한 소행을 늘 마음속에 새겨두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격정에 넘쳐있는 녀병사들을 정깊이 바라보시며 자신께서 외진 산중초소에서 자나깨나 위대한 수령님을 그리며 꽃다발을 정히 엮어온 이곳 중대군인들의 소행이 너무도 기특하여 꼭 만나보려고 하였다고 교시하시였다.

녀병사들은 그이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였다.

초소를 다 돌아보시고 떠나실 때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대이름을 기억하고 가겠다고 하시면서 이곳 중대는 이름자체가 인상적이여서 외우기도 좋다고, 감나무중대와 함께 유명한 중대가 또 하나 생겼다고 사랑넘친 교시를 하시였다.

병사의 영예사진앞에서

언제인가 인민군부대의 한 녀성구분대를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예게시판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게시판에는 병사들의 명랑하고 다양한 생활을 담은 사진들이 나붙어 있었다.

딸자식의 대견한 모습을 바라보시듯 다정하신 눈길로 녀성군인들의 사진을 하나하나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진이 참 잘되였다고, 보람찬 군무생활의 이모저모를 잘 반영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한해전 영웅강계장자산제 1 중학교에 갔을 때 그 학교를 졸업한 군인들이 편지와 함께 보낸 영예사진들을 학교게시판에 붙여놓은 것을 보았는데 그런것을 보아서라도 이런 사진들을 모교에 많이 보내주어야겠다고, 이렇게 름름하게 성장한 군인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모교에 더 많이 보내주면 새 세대들에게 큰 고무가 될것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이의 이렇듯 웅심깊고 뜨거운 사랑을 안고 오늘도 병사들은 보람찬 군사복무의 나날을 값높은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다.

자신의 소원이 풀리게 되였다고 하시며

주체 95(2006)년 2 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어느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이곳 군인들의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보살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취사장으로 향하시였다. 점심준비가 한창인 취사장은 뜨김까지 뽀얗게 서려있는데다가 음식냄새가 가득차있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환히 웃으시며 취사장에 들어서시였다.

식당근무성원들의 인사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름기가 찰찰 도는 콩밥을 보시고 먹음직스럽다고, 밥은 백미만 가지고 한것보다 콩을 적당히 섞어 한것이 더 구수하다고 하시였다. 가마에 콩과 쌀은 어떤 순서로 안치며 물은 얼마나 부어야 하는가 등 콩밥을 맛있게 짓는 방법을 차근차근 가르쳐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다심하신 말씀, 살뜰한 은정에 식당근무성원들의 가슴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문득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녀병사에게 언제 군대에 입대하였는가고 물으시였다.

5 년전에 입대하였다는 그의 힘찬 보고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구대원이라고 못내 대견해하시였다.

튼튼하고 균형잡힌 녀병사를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군대에 나오기 전부터 몸이 좋았는가고 다시금 물으시였다.

녀병사는 입대하기 전에는 약했댔는데 콩음식을 먹으면서 몸이 좋아졌다고 말씀올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러는 녀병사에게 화장을 했는가고 또 물으시였다. 화장을 하지 않았다는 그의 말이 믿어지지 않으신듯 우유빛도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시던 그이의 안광에 기쁨의 미소가 어리였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화장을 하지 않은것이 옳다고, 그런데도 이렇게 얼굴색이 뽀얗고 곱다고 하시면서 군인들에게 콩을 많이 먹여서 얼굴이 뽀얗게 고와지게 하는것이 소원이였는데 이제는 자신의 소원이 풀리게 되였다고 하시였다.

콩살이 올라 고와지고 튼튼해진 병사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시며 콩이 제일이라고, 얼마나 좋은가고 그리도 기뻐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은 고향집어머니의 모습이였다.

손에 감을 쥐고있는 처녀

손에 감을 쥐고있는 처녀, 이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혁명적군인가정의 본보기인 엄복순동무네 가정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손경실동무를 가리켜 정을 담아 하신 교시이다.

그날은 주체 89(2000)년 2 월 17 일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부모와 함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는 나어린 녀병사를 정깊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손경실이는 손에 감을 쥐고있는 처녀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손경실이는 아무리 보아도 감을 쥐고있는 모습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경실이는 감을 쥐고있어야 제격이라고 하시며 일군들에게 현지시찰의 길에서 체험하신 사실을 들려주시였다.

주체 86(1997)년 11 월 어느날 감나무중대에 대한 현지시찰을 마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감회는 깊으시였다. 한 녀병사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으시기때문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오늘 녀성해안포중대를 현지지도하면서 보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중대를 현지지도하실 때 수령님께 꽃다발을 드렸던 녀성의 딸이 자기 어머니가 서있던 초소에서 군사복무를 하고있었다고, 그가 자기 어머니가 해안포중대에서 복무할 때 심은 감나무에서 딴 감을 들고 자신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하시면서 어머니가 자기가 서있던 초소에 딸을 세운것도 훌륭하고 그 딸이 어머니가 심은 감나무에서 딴 감을 들고 자신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을 생각을 한것도 기특하다고 하시였다.

주체 89(2000)년 2 월의 명절을 며칠 앞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감나무중대를 세번째로 찾으시였을 때였다.

그날 녀병사를 몸가까이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실이가 그동안 키도 크고 몸도 좋아졌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경실이가 보고싶어 여기에 오기 전에 동무가 중대에 있는가 하는것을 알아보았는데 방송야회준비때문에 평양에 올라갔다고 하기

에 이번에는 만나지 못하는줄 알았다고 하시였다.

녀병사를 바라보시며 그이께서는 평양에 갔다가 언제 왔는가고 하시며 경축무대에 가서 뭘 연설하려 했댔는가 솔직히 말해보라고 친근하게 권유하시였다.

2월 16일경축 방송야회에 출연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믿음과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고 영광의 사적이 깃들어있는 조국의 해안초소를 대를 이어 지키겠다는것을 이야기하려 하였다는 그의 씩씩한 보고를 들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좋다고, 한번 잘해보라고 적극 지지해주시며 경실이가 경축무대에서 말하는것을 록음하여 자신께서 직접 꼭 들어보겠다고 약속하시였다.

녀병사에게 부모의 건강과 사업에 대해서도, 어머니가 중대에 자주 찾아오는가도 물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일성**정치대학에 간다는것을 아시고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하라고 그의 앞날까지 따뜻이 축복해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중대는 감나무중대라고, 경실이가 감을 들고 자신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것을 보고 인민군대에서는 모든 중대들에서 감나무를 심는 운동이 벌어지고있다고, 특히 인민군대안의 녀성중대들에서 감나무를 많이 심으면 최고사령관이 중대에 온다고들 말한다는데 대하여 들려주시며 밝은 웃음을 지으시였다.

병사시절을 마친 손경실동무의 삶의 길에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해빛은 더욱 따사로이 비쳤다.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를 받아안은 끝없는 영광, 제15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는 조선청년학생대표단의 성원으로 내세워주신 크나큰 믿음, 정치대학과정안을 마치고 졸업하는 그를 감나무중대 정치지도원으로 사업하도록 하신 은정깊은 조치, 감나무중대에 네번째로 찾아오시여 어엿한 정치일군으로 자라난 그의 모습을 보시며 부모의 뒤를 이어 총대로 조국을 받들어가고있는 애국적소행에 대하여 높이 치하하신 사실…

어찌 이뿐이랴. 어느덧 제대되여 시집을 가게 된다는것을 아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결혼상까지 보내주시였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자욱이 어려있는 감나무중대에 대하여 추억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감나무중대를 여러차례 찾으시여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으며 어머니가 섰던 초소를 대를 이어 지켜가고있는 손경실동무와 같이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고, 그때 손경실동무는 제일 크고 잘 익은 감을 손에 쥐고 어버이장군님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영웅의 안해를 훌륭한 녀성혁명가로 키우시려고

주체 86(1997)년 10 월 어느날 전선시찰의 길에 계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무척 반가와하시며 만나주신 한 녀성군관이 있었다.

그는 온 나라에 수령결사옹위의 영웅전사로 알려진 하늘의 불사조 길영조영웅의 안해 리은경동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사한 남편의 뒤를 이어 군복을 입은 영웅의 안해를 대견해하시며 그의 사업과 생활을 일일이 알아보시였다. 그러시면서 건강한 몸으로 맡은 일을 잘하라고, 아이들은 당에서 키워줄테니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군사복무에 충실하라고 친어버이심정으로 당부하시였다.

그날 저녁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 길영조영웅의 안해를 만나보니 생각이 많아진다고 하시며 일군들에게 길영조영웅의 안해를 잘 도와주어 훌륭한 녀성혁명가로 키워야 하겠다고, 이것은 우리곁을 떠난 영웅들에 대한 우리의 도리이며 의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속에 영웅의 안해는 선군혁명의 핵심골간, 기둥감들을 키워내는 원종장에서 책임일군의 중임을 지니였다.

감나무중대의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을 잊지 않으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믿음에 의해 감나무중대의 중대장과 중대정치지도원은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으로 사업하게 되였다.

큰일을 맡아하는 자식을 두고 더 마음을 쓰는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그들에 대하여 늘 잊지 않으시고 전선길에서 자주 추억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 86(1997)년 뜻깊은 전승절에 즈음하여 몸소 이들의 부대를 찾으시였다.

대대장과 대대정치지도원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대감나무는 어떻게 하고 여기에 와있는가고 웃음담아 물어도 주시고 해빛이 내려쪼이는 마당에서 군인들의 훈련모습을 오래도록 보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중대를 떠나올 때 장군님품을 떠나오는것 같아 서운했는데 최고사령관동지의 믿음과 보살피심은 계속된다고 말씀올리는 대대장을 대견하게 바라보기도 하시고 녀성군인들의 생활에서 애로되는것은 없는가고 정치지도원에게 세심히 물어도 주시였다.

그날 저녁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대장과 대대정치지도원을 조선인민군협주단 공훈합창단(당시) 공연관람에 불러주시였다.

너무나도 크나큰 행복에 《만세!》를 부르며 환호하는 그들앞으로 다가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앓지 말고 건강하여 일을 잘하라는 크나큰 믿음과 고무를 다시금 안겨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감나무중대 중대장, 정치지도원을 한 동무들은 고난의 행군시기 우리 당의 군중시사상을 널리 선전한 훌륭한 녀성들이라고, 고난의 행군시기 감나무중대 군인들에게서 큰 힘을 얻었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있는가 물어보시고 자주 회고하시며 주실수 있는 은정과 믿음을 다 안겨주시였다.

(3)

사랑의 명령

주체 100(2011)년 12 월 27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의 영결식을 하루 앞둔 이날 크나큰 상실의 아픔과 슬픔으로 하여 눈물의 바다를 이룬 조선의 하늘로 한대의 비행기가 날아올랐다.

비행기안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은정어린 조치에 의하여 다른 나라에 치료를 받으러 가는 한 녀성이 타고있었다. 조선인민군 4.25 체육단 송구감독 신화순동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민족이 대국상을 당한 애도기간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들도 많고많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 그의 건강을 두고 걱정하시였다는것을 아시고 이렇듯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것이였다.

몇달전인 주체 100(2011)년 5 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조선인민군종합체육관 개관식에 나오시였다.

개관식이 끝난후 선수들의 경기를 보아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기장밖에서 경기지휘를 하는 녀성감독을 유심히 바라보시다가 흐리신 안색으로 감독의 얼굴에 병색이 돈다고 하시였다.

해당 일군들로부터 그가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것과 자기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것을 알면서도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훈련장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나와살다싶이 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훌륭한 동무라고, 그의 병치료를 잘해주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거듭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으로 신화순동무는 관록있는 의료집단의 적극적인 치료를 받게 되였다.

허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뜻밖에 서거하시였다는 비보에 접한후 그의 병세는 심히 악화되였다.

애도기간인 12월 22일 신화순동무의 병치료정형을 몸소 료해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를 지체없이 외국의 이름있는 병원에 보내여 치료받도록 하라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신화순동무는 격정의 눈물을 흘리며 일군들에게 단 하루만이라고 출발을 늦추어 위대한 장군님을 바래워드리는 영결식에 참가하고 떠나겠다

고 거듭 애원하였다.

그러는 신화순동무의 손을 꼭 잡고 일군들은 동무를 하루빨리 떠나보내라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신 명령이라고, 어서 떠날 준비를 하라고 말하였다.

하여 그는 오열을 터뜨리며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였다.

녀성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주체 101(2012)년 7 월 건설중인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앞으로 녀성들의 유선증과 유선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세계적으로 녀성들을 위한 유선종양연구소가 이렇게 큰 규모에서 꾸려지고있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을것이라고, 녀성들이 상당히 좋아할것이라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유선종양연구소건설과 설비구입을 비롯하여 제기되는 크고작은 문제들을 일일이 다 풀어주시고 세상에서 좋다는것은 다 보내주시였을뿐아니라 몇달후인 11 월초 또다시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찾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아래층에서부터 모든 방들을 하나하나 다 돌아보시면서 시공도 나무랄데가 없이 잘하고 값비싼 첨단의료설비들도 없는것이 없이 그쯘하게 다 갖추었다고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입원실들에 호텔에 놓는 랭동기를 놓아주되 립식으로 만든것이 아니라 책상식으로 만든것을 놓아주며 액정 TV 를 보내줄테니 탁을 놓지 말고 벽에 걸어주자고, 집중치료실의 매 침대옆에 설치한 환자들을 감시하는 장치는 콤퓨터로 감시초소에서 종합적으로 보게 하며 면회자들이 오면 환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수 있도록 면회홀에 식탁과 의자도 놓아주자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유선종양연구소를 녀성들을 위하여 마음먹고 꾸리는것만큼 모든 요소들이 세계적인 수준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우리 녀성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백화점에 생긴 놀이터

주체 101(2012)년 5월 30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완공을 앞둔 평양아동백화점을 찾으시였다.

1층부터 3층까지 백화점을 다 돌아보시고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아동백화점의 매 층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꾸리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아동백화점의 매 층에 놀이터를 꾸려놓고 부모들이 매대를 돌아보며 상품을 사는 동안 어린이들은 거기에서 놀도록 하여야 한다고, 매 층에 어린이들의 놀이터를 꾸린다고 하여 방을 따로 꾸릴 필요는 없고 홀이나 어느 적당한곳에 일정한 구획을 정해놓고 어린이들이 놀수 있는 시설을 차려놓으면 된다고, 어린이들의 놀이터를 꾸려놓으면 넓은 매장면적도 줄어들게 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화점을 다녀가신지 며칠후 친히 수많은 실내놀이터용기재들을 보내주시였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듯 한달후 또다시 평양아동백화점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린이들은 놀이터에 재미를 붙이면 집에 갈 생각도 하지 않기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들이 어린이들을 잃어버릴 걱정이 없어지게 된다고, 그래서 자신께서 평양아동백화점에 놀이터를 꾸려놓으라고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영원불멸할 화폭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아직은 무더위가 가셔지지 않은 주체 101(2012)년 8월 2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랑의 자욱이 뜨겁게 새겨져있는 감나무중대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중대의 모든 병사들과 함께 기념사진촬영을 끝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떠나실 때가 되자 그이의 소탈한 풍모에 매혹된 녀병사들이 오래간만에 만났던 아버지와 헤여지는 철부지아이들처럼 저저마다 그이의 품에 안겨들며 좀처럼 떨어질줄 몰랐다.

너도나도 발을 동동 구르며 안겨드는 녀병사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좀처럼 떠나실것 같지 못하였다.

그러는 그들에게 정겨운 시선을 보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신께서 감나무중대를 처음으로 왔는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처럼 아끼시던 감나무중대 군인들을 위해 해줄수 있는것은 다 해주려고 한다고, 좀전에는 중대군인들과 집체적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군인들과 개별적으로 기념사진을 찍겠다고 사랑의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뜻밖의 말씀에 환성을 올리던 녀병사들은 그이께서 오랜 시간 서계셔야 한다는 생각이 갈마들어 주춤하였고 함께 동행하였던 일군들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될것 같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소탈한 웃음을 지으시고 감나무중대 군인들을 위해서라면 하루종일이라도 서있겠다고 하시며 어서 사진촬영준비를 서두르라고 이르시였다.

이렇게 되여 바다가풀밭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팔을 꼭 끼고 행복의 웃음을 짓는 녀병사들의 모습이 차곡차곡 사진기에 담겨지게 되였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

주체 101(2012)년 8 월 17 일 기별도 없이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하고있는 장재도방어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엎어질듯 달려오는 섬방어대군인가족들속에서 애기어머니를 띄여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머니의 품에서 태여난지 6 개월밖에 안되는 정항명어린이를 받아안으시였다.

어린이를 한품에 안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른 손으로 자신께 인사를 드리는 아이들의 볼을 다독여주시고는 기뻐 어쩔줄 몰라하는 군인가족들을 둘러보시며 중대군관들과 안해들과 자녀들을 만나니 반갑다고, 중대군관들의 안해들이 최전연섬에 들어와 남편들의 혁명사업을 도와주느라고 수고를 많이 한다고 따뜻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항명이의 볼을 어루만져주시면서 이 애아버지는 어디에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항명이의 아버지가 중대의 군관이며 지금 출장중이라는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못내 서운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정한 미소를 담으시고 주위에 둘러선 아이들을 애무해주시면서 중대군관들의 자녀들이 모두 귀엽게 생겼다고, 모두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하시였다.

그 말씀에 군인가족들은 너무 기뻐 서둘러 아이들을 고쳐안으며 그이의 곁에 바투 다가섰다.

항명이 어머니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안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이 애를 안고 사진을 찍어야 출장중에 있는 애아버지가 기뻐할것이라고 하시면서 항명이를 더 꼭 껴안으시는것이였다.

멀리 출장길에 있는 항명이 아버지에게 주고싶은 사랑을 합쳐, 이 자리에 없는 남편때문에 서운해하는 애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항명이를 살뜰히 안아주시는 그이의 사랑이 하도 고마와 항명이 어머니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사진을 찍었다.

사진촬영이 끝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항명이를 애어머니에게 안겨주시며 장재도에 있는 군관자녀들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회주의조국을 한목숨바쳐 지키는 열렬한 애국자, 혁명가로 억세게 키워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류다른 탁아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커다란 관심과 따뜻한 보살피심속에 주체 101(2012)년 11 월 처음으로 제정된 어머니날을 맞으며 제 4 차 전국어머니대회가 진행될 때였다.

어머니대회를 준비하면서 젖먹이어린이를 키우는 참가자들문제가 중요하게 론의되였다. 당시 어머니대회참가자로 추천된 녀성들가운데는 젖먹이어린이를 키우는 녀성들이 적지 않았기때문이였다.

대회의 준비사업을 맡았던 일군들과 당사자들이 속을 태우고있던 바로 그때 참가자들모두를 놀래우는 참으로 가슴뜨거운 조치가 취해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젖먹이어린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도 마음편히 대회에 참가할수 있도록 숙소에 탁아소를 내오도록 하시였던것이다.

이렇게 되여 대회력사상 있어본적이 없는 류다른 《탁아소》가 대회참가자들의 숙소에 생겨나게 되였다.

그 소식에 접한 애기어머니들만이 아닌 참가자들모두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겁고도 다심한 어버이사랑과 인정에 목이 메여 눈시울을 적시였다.

젖먹이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아이를 품에서 떼여놓을수밖에 없는 환경에 맞다들렸을 때처럼 속상한 일은 없다. 한생에 두번다시 있을가말가한 영광의 대회에 참가하고싶은 열망은 불같았지만 젖먹이어린이를 떼여놓을수 없는 고충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처지에 빠져있던 그들이였으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마련해주신 《탁아소》는 정녕 애기들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들도 모두 안아준 친정어머니의 따뜻한 품이였다.

다시 피워주신 꽃

주체 101(2012)년 6 월 어느날 함경북도 청진시 라남구역 라북 1 동에서 살던 박정숙이라는 녀성이 남조선괴뢰패당에게 유괴당하였다가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와 국내외 기자들과 회견하는 보도가 TV 로 방영되였다.

예로부터 나라를 배반한 죄는 제일 크고 용서받을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를 크게 탓할 대신 오히려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재생의 삶을 누릴수 있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가지회견장에서의 박정숙녀성의 모습은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였다.

괴뢰패당의 꼬임수에 넘어가 남조선에서 수년세월 고통과 모대김속에 살아오던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서거하셨다는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접하고 몸부림치다가 끝내는 결심을 품고 조국으로 돌아왔다는 그 녀성의 진심의 목소리, 더우기 박정숙녀성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죄인이나 다름없는 자기를 평양의 어느 한 대학의 교단에 서있는 아들과 함께 평양에 모여살도록 해주시였다고 눈물을 머금고 이야기할 때에는 장내에 뜨거운 격정의 파도가 일었다.

그러나 인민들은 박정숙녀성과 그의 가정에 베풀어진 한없는 사랑과 믿음에 대하여 다는 알지 못하였다.

처음 박정숙녀성이 조국의 품에 다시 돌아올 결심을 하고 어느한 대표부를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일부 일군들 지어는 그의 가족들까지도 그를 만나는것을 저어했었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일군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시였을뿐 아니라 해당 일군들과 가족들이 비행장에 나가 그를 맞이하도록 해주시였다.

주체 101(2012)년 6 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그 녀성은 남조선에서 생활하면서 실지 남조선은 사람 못살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고, 그 녀성이야말로 사회주의제도와 자본주의제도에서 살아본 녀성이라고 하시면서 해당 기관에서 썩어빠진 남조선현실을 목격하고 조국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그 녀성을 망탕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그를 믿어주려면 완전히 믿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그 녀성이 아들과 함께 마음편히 살아갈수 있게 해주어야 하겠다고 사랑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그후 박정숙녀성만이 아닌 적들의 간계에 의하여 조국을 떠났던 사람들이 조국의 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품에 안기여 새삶을 꽃피우는 감동깊은 화폭이 련이어 펼쳐졌다.

뜻깊은 축하연

주체 103(2014)년 5월 1일 대동강반에 현대적으로 새로 일떠선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에서는 성대한 로동자연회가 진행되였다.

백수십년을 헤아리는 5.1 절력사에 류례없는 이 뜻깊은 축하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몸소 마련해주신것이였다.

4월 29일 완공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공장 로동자합숙을 새로 건설하여주겠다고 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동계급과 한 약속이라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오늘 정확히 집행되였다고 하시며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이께서는 합숙생들의 친어버이가 되시여 생활상 불편이 있을세라 로동자합숙의 호실들과 세면장, 위생실, 목욕탕, 치료실, 도서실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식사실을 돌아보시며 식사실이 정말 멋있다고, 식사실이 연회장이나 결혼식식당보다 낫다고 하시면서 시종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던 그이께서는 이 식당에서 연회를 하여도 되겠다고 하시며 이번 5.1 절을 맞으며 연회를 크게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 5월 1일이 생일인 로동자들도 있겠는데 그들도 다 불러 로동자연회에 참가시키라고, 그러면 모두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로동자연회에 인민군총정치국장이 참가하여 연설도 하고 자신의 마음까지 합쳐 로동자들을 축하해주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세상에 없는 로동자궁전, 로동자호텔에서 5.1 절경축 로동자연회가 마련되는 전설같은 이야기가 생겨나게 되였다.

사랑의 약속

주체 103(2014)년 10월 28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5월1일경기장에서 평양시민들과 함께 국가녀자축구종합팀과 월미도녀자축구팀사이의 녀자축구경기를 관람하고 나오실 때였다.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선수, 감독들과 관람자들을 향해 오래동안 손저어 답례하고나신 그이께서는 문득 한 일군을 찾으시여 전번에 김정선수를 만나지 못했는데 그가 왔는가고, 왔으면 빨리 데려오라고 이르시였다.

순간 일군은 가슴이 뜨거워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열흘전에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계신것이였다.

그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제 17 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최근 세계선수권대회들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선수, 감독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었다.

그들의 위훈을 하나하나 치하해주고나신 그이께서는 탁구선수, 감독들앞으로 다가가시여 누군가를 찾는듯 둘러보시였다.

일군들이 의아해하자 그이께서는 대뜸 김정선수가 왜 보이지 않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김정선수는 국제경기를 위해 조국을 떠나있어 영광의 자리에 참가하지 못했다고 대답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제 17 차 아시아경기대회 탁구혼성복식경기에 참가한 김혁봉, 김정선수들이 경기를 마지막까지 잘했다고 하시며 그 자리에 김정선수가 없는것을 못내 아쉬워하시다가 앞으로 기회를 마련하여 그를 꼭 만나주겠다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그날의 사랑의 약속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켜주신것이다.

김정선수는 너무도 고마와 한달음에 달려가 인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못내 반가우시여 김정선수의 위훈을 다시금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그가 제52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혼성복식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한데 이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탁구혼성복식경기에서 또다시 금메달을 쟁취하여 조국의 영예를 빛내였는데 정말 기특하다고, 앞으로 훈련을 더 잘하여 국제경기들에서 계속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 믿는다고 고무해주시면서 그를 자신의 곁에 다정히 세워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대회장에서 지어주신 아기이름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가 거의 끝나갈무렵이였다.

주석단에 계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문득 자신께서 얼마전에 녀성비행부대에 갔다가 갓 출생한 녀성비행사동무의 아들이름을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지어주지 못하여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대회참가자들모두가 다 그러했지만 특히 부부비행사가 받아안은 충격은 이를데없이 컸다.

한달전 그곳 부대를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비행사부부가 아들을 보았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못내 기뻐하시며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해주시였었다.

대회장은 그야말로 격정의 도가니로 화하였다.

하지만 그 시각 어느 누구도 부부비행사와의 약속을 화제에 올리시는 그이의 말씀에 얼마나 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는지 알수 없었다.

오전회의가 끝났을 때 회의장을 나서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문득 한달전 부부비행사와 하신 약속을 상기하시면서 그동안 일이 바쁘다나니 시간이 없어 이름을 지어주지 못하였다고, 부부비행사의 아들이름을 꼭 지어가지고 나오겠다고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이날 오후에 대회장에 나오신 그이께서는 일군들의 인사를 받으시기 바쁘게 아기의 이름부터 화제에 올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석단에 앉아있는 비행부대 지휘성원을 통하여 녀성비행사가 아들을 옥류아동병원에 맡기고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아직 이름은 짓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자신의 의견을 내놓으시였다.

아들의 아름을 아직 짓지 않았으면 지어주자고 한다고, 아들이 앞으로 비행기를 타겠는지 모르겠지만 비행사가 되여 조국의 하늘을 지키면 좋고 다른 일을 해도 자기의 순결한 량심으로 당을 받들고 투철한 애국심을 지니고 조국의 번영을 위해 한생을 충성의 한길로만 변함없이 가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리충도라고 지으면 어떻겠는가고 하시였다.

순간 우렁찬 박수소리가 대회장을 진감하였다.

장군님 아시는 녀성

주체 98(2009)년 3 월 8 일 3.8 국제부녀절을 맞는 조선녀성들을 축하하는 뜻깊은 연회가 진행되였다.

이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함께 연회장에 나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녀성일군들을 한사람한사람 만나시여 친히 축배잔을 찧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한 녀성일군의 앞에 이르시였을 때였다.

한 일군이 녀성일군을 가리키며 그가 인민무력부선물관(당시)에서 일하는 관장이라고 소개해드리자 그이께서는 못내 반가와하시였다.

너무도 황송하여 어쩔바를 몰라하던 녀성일군은 그이를 우러르며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였다.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답례를 하신 그이께서는 오늘 3.8 국제부녀절 명절을 축하한다고, 함께 축배잔을 들자고 하시며 잔을 찧어주시였다.

그리고 그의 건강에 대하여 다정히 물으시였다.

건강하다는 그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정임동무가 앓지 말고 건강해야 장군님 뜻대로 60 살, 70 살까지 군복을 입고 일을 잘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녀성일군이 잔을 다 내도록 기다려주신 그이께서는 문득 그의 옷차림에 눈길을 주시며 이 뜻깊은 날에 왜 사복을 입고왔는가고 물으시였다.

행사에 참가하느라고 사복을 입고왔다는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몹시 아쉬운 표정을 지으시며 장군님께서 아시는 김정임은 군복을 입은 김정임이지 사복을 입은 김정임이 아니라고, 자신께서도 관장동무를 군복을 입은 녀성일군으로 기억을 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은 그는 가슴속으로 우러나오는 진정을 이렇게 말씀드리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꼭 군복을 입겠습니다. 영원히 군복을 입고 절세위인들의 위대성을 온 세상에 빛내여나가는 장군님의 참된 딸이 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믿음어린 눈길로 그를 바라보시며 고맙다고, 자신께서도 정임동무를 잊지 않겠다고, 앞으로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였다.

초도의 군인가족들이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

주체 101(2012)년 3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멀고 험한 배길을 헤치시고 서해안 전방초소인 초도를 찾으시였다.

이날 초도의 군인들과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연혁실이 있는 둔덕쪽으로 오르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였다.

얼마 떨어진 언덕에서 두팔을 높이 쳐들고 목청껏 《만세!》의 환호를 올리고있는 녀인들을 보셨던것이다.

부대지휘관으로부터 녀인들이 군인가족들이라는 사실을 보고받으신 그이께서는 대뜸 군인가족들과도 사진을 찍어야 하겠다고 하시더니 그들을 향해 어서 내려오라고 손짓하시였다.

너무도 뜻밖에 찾아온 행복앞에서 어쩔바를 몰라하던 그들은 꿈결에도 그립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선뜻 달려갈수가 없었다. 한것은 그들 대다수가 운동장에서 울려오는 환호소리에 놀라 집안에서 입던 옷차림 그대로 달려나왔기때문이였다.

너무도 안타까와 어쩔바를 몰라하는 순박한 그 모습들에 더욱 정이 끌리신듯 그이께서는 몸소 그들을 마중가시며 어서들 오라고 거듭 손짓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두팔과 옷자락에 매여달려 떨어질줄 모르는 그들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군인가족모두를 사랑의 넓은 품에 안아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영광의 기념사진을 남겨주시였다. 그것은 군관인 남편의 영원한 혁명동지, 부사수가 되여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켜가야 한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이 담겨진 뜻깊은 기념사진이였다.

되돌아오신 사연

어느해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정이 훨씬 넘은 깊은 밤에

인민군대의 한 단위를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오랜 시간 단위의 사업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나서 그곳 녀성일군을 다정히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공로있는 동무라고 치하해주시였다.

떠나시면서도 그이께서는 그에게 앓지 말고 건강하라고, 오래동안 일을 더 잘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또다시 새날을 맞으실 그이의 로고를 생각하며 녀성일군은 그이께서 떠나신 후에도 선뜻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그런데 어인 일인가.

한동안이 지나서 그이께서 타신 차가 되돌아오는것이였다.

영문을 몰라하는 그에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함께 사진을 찍어주지 못한것이 마음에 걸리여 다시 돌아왔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그와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을 남기시였다.

군인들과 함께 부르신 노래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한 녀성구분대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구분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다심한 사랑을 부어주신 그이께서는 녀성군인들이 준비한 예술소품공연도 보아주시였다.

녀성군인들이 모두 미인들이라고, 조선의 미인들은 다 여기에 모인것 같다고 사랑을 담아, 정을 담아 말씀하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군인들은 크나큰 격정속에 노래를 불렀다.

군인들의 노래를 뜨거운 격정속에 들으신 그이께서는 우리가 적들과 싸우면 반드시 이길수 있다는 신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다고, 녀성군인들도 이렇게 준비되였는데 우리를 당할자가 그 어디에 있겠는가고, 우리는 싸움을 하면 반드시 이길것이라고 힘있게 선언하시였다.

너무도 소탈하고 인자하신 그이께 한 지휘관이 어려움도 잊고 그이의 노래를 듣고싶다고 청을 드리였을 때였다.

녀성군인들의 요청이니 노래를 부르겠다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다같이 부르자고 하시며 노래 《내가 지켜선 조국》의 선창을 떼시였다.

노래가 끝나자 군인들은 우렁찬 박수를 치며 한곡만 더 불러주실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한곡 더 부르자고 하시며 이번에는 모두 함께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부르자고 하시는것이였다. 그러시고는 녀성군인들과 함께 또다시 노래를 부르시였다.

이 자리에 참가하지 못한 군인들도 있다는데 그들도 모두 데려오라고, 그들과도 함께 사진을 찍겠다고 하시며 여러차례에 걸쳐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신 그이께서는 감격의 눈물을 걷잡지 못하는 녀성군인들에게 한생을 영원히 당을 따라 충성과 위훈으로 빛내여나갈데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떠나시기에 앞서 그이께서는 부대지휘관들에게 녀성군인들은 우리 당이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보배이며 나라의 자랑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잘 보살펴주고 적극 내세워주며 그들을 위훈의 한길로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기다려주신 지배인의 안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8월25일수산사업소를 4번째로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바다만풍이 든 일터에 경애하는 그이를 또다시 모시게 된 수산사업소 종업원들과 가족들의 기쁨과 감격은 정말 끝이 없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하여 일손이 딸리는 부두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서 창문을 내다보는 지배인 안해의 가슴속엔 너무도 안타까와 재가 앉는듯 했다.

이날 또다시 수산사업소의 종업원들은 물론 가족들과 함께 모두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뜻밖에도 사업소의 당일군으로부터 지배인의 안해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시였다.

경애하는 그이의 안색은 흐려지시였다. 지난해 사업소종업원들의 공연을 보아주실 때에도 지배인의 안해가 몸이 불편하여 참가하지 못하였다는것을 아시고 못내 가슴아파하시였던 그이이시였다.

이윽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위원장이 자신께서 사업소를 3차례나 찾아주어 기념촬영을 해주었지만 지배인의 안해가 건강이 허락치 않아 한번도 참가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어서 데려와야 하겠다고 자애로운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배인의 안해가 이번에도 기념촬영에 빠지면 몹시 섭섭해할것이라고, 어서 내 차를 타고가서 빨리 데려오라고 당일군에게 독촉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지배인동무의 안해가 올 때까지 여기서 좀 기다리자고 말씀하시였다.

얼마간 시간이 흘러 촬영장에 도착한 지배인의 안해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품에 와락 안기였다.

그이께서는 지배인의 안해를 만나니 반갑다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배인의 안해가 물고기잡이에 아무런 보탬을 주지 못한 자기를 몸가까이 불러주어 무슨 말로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남편의 뒤바라지를 잘하여 그가 맡은 일을 더 잘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따뜻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흐느껴우는 지배인과 그의 안해의 팔을 량쪽에 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로동자시인의 감격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 107(2018)년 6 월 어느날 신의주화장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양화장품공장에는 두번이나 갔댔는데 여기는 처음이라

고, 하지만 동무네는 평양화장품공장에서 교훈을 찾고 더 높이 일떠섰다고 치하도 해주시고 화장품산업에서 신의주화장품공장과 평양화장품공장이 쌍기둥이라는 크나큰 믿음도 안겨주시였다.

이날 완성작업반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공장의 한 녀성로동자가 노래 《준마처녀》의 가사를 지은 로동자시인이라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그이께서는 못내 기쁘고 대견하시여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화장품직장 녀성로동자가 노래 《준마처녀》의 가사를 쓴 로동자시인이라는데 공장에 그런 재간둥이가 있는것은 자랑할만 한 일이라고 평가하시였다.

다음 순간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동자시인을 향해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신것이였다.

녀성로동자는 그만 당황하여 어쩔바를 몰랐다.

꿈결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직접 뵈온것만도 크나큰 영광인데 그이께서 인사까지 하시니 정녕 송구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금할수 없었던것이다.

온 세계가 현시대의 가장 세련되고 로숙한 정치가, 탁월한 령도자로 떠받드는 걸출한 위인이시건만 인민을 대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모습은 언제 어디에서나 이처럼 겸허하시였다.

이불폭포

주체 105(2016)년 6 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찾으시여 인민들의 물질생활을 더욱 풍족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고리로 여러가지 질좋은 이불들을 생산하는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꾸릴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도 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 106(2017)년 1 월 새로 꾸려진 이불생산공정을 보아주시기 위하여 또다시 공장을 찾으시였다.

이불생산현장에서는 녀성로동자들이 한창 갖가지 색갈의 아름다운 겨울이불, 여름이불, 봄가을이불, 결혼식이불, 침대깔개를 비롯한 여러가지 침구류들을 생산하고있었다.

이불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면서 만족을 표시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불의 색갈, 무늬가 우리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으면서도 고상하고 아름다울뿐만 아니라 이불이 가벼우면서도 부드럽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생산에 리용되는 자재도 모두 우리의것이라고 하시면서 녕변견직공장을 비롯한 우리 나라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하는 비단천과 명주솜 등을 가지고 여러가지 이불들을 만들고있는데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였다. 제품창고에 이불들이 그득히 쌓여있는것을 보시면서는 며칠전 새로 건설된 평양가방공장에 가서는 가방폭포를 보았고 오늘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와서는 이불폭포를 보았는데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말씀하시였다.